##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김 경 덕 부연구위원



# 间圈

#### 머리말

지난 25년 동안(1970~95년)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보다 더딘 성장을 보였으며, 비중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다. 농가인구도 젊은 총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농하여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부문은 질 좋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영농후계자의 단절을 호소하고 있다.

특정분야의 홍망성쇠는 궁극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생산에 유능한 인력을 끌어 드리고 육성하는 노력이 향후 우리 나라 농업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력의 지역 및 영농형태별 연령구조와 학력분포의 현황분석과 2000년대 초 농업인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연구분석은 향후 인력육성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농업투자를 위한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부문의 성장을 농업내부의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분석·전망하고 있다. 농업노동력 생산성 변화를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연령, 학력 등 노동력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2000년대초 농가인구와 농업주종사자를 연령별·성별·지대별로 전망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력의 공급 가능량과 함께 질적 측면에서 인적 자원의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수도작부문의 노동력 수요 전망분석을 병행하여 2000년대초의 수급 전망을 가늠함으로써 정부의 수도작 전업농육성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농업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1998.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 側題

### 목 차

제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4
제	제 2 장 농업생산부문의 구조와 인력	현황
	1. 농업생산부문의 구조 변화	5
	2. 농가인구의 구조 변화	19
	3. 농업생산부문 요소 투입량과 생신	성31
	4. 농가 및 경영주의 구조 분석	35
제	제 3 장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전밍	과 신규 귀농가 분석:
	농업인력 공급	
	1. 농업노동력 전망모형: Cohort 방	월48
	2.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전망	52
	3. 농업생산무문 송사자 선방	61
	<ol> <li>3. 농업생산부분 총사자 선방</li> <li>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원: 귀농가</li> </ol>	
제	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원: 귀농가	766
제	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원: 귀농가 제 4 장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 분	?66 분석: 수도작을 중심으로
제	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원: 귀농가	766 분석: 수도작을 중심으로 73

제	5	장	쌀	생산	부문	의노	동력	수급	급 전명	강					
	1.	수도	-작	부문	의 :	노동력	과브	후족	전망	•••••					85
	2.	수도	드작	전업	농 -	육성책	의 건	정책목	丑	적힙	·성	•••••			87
제	6	장	ይያ	약 및	결	<b></b>			•••••	••••		******	•••••	*****	93
부		록:	농	가인-	구의	전망(	1998	~20	00년	연	평균	경제	성경	상률	
			-2	~2%	フト	정)								· · · · · · · · · · · ·	99

### 표 목 차

제 2 장:		
丑 2-1	영농형태별 농가 수	3
丑 2- 2	채소ㆍ축산ㆍ과수농가의 품목별 농가 비중	3
丑 2- 3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가 수, 1995년	9
丑 2-4	영농형태별 농축산 판매금액 규모, 1995년	9
丑 2- 5	영농형태별 주요 농축산물 판매방법, 1995년10	)
丑 2-6	영농형태별 지역 특화계수, 1995년1	1
班 2-7	지역별 가축 사육규모, 1995년1	1
<b>퐢</b> 2− 8	농림어업 취업자,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변화율 추세1	3
丑 2- 9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l	4
丑 2-10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연 평균 중감률l	5
丑 2-11	휴경농지 사유별 면적l	6
丑 2-12	경지규모별 농가 수1	7
丑 2-13	경지규모별 전·겸업 농가 분포, 1995년1	8
丑 2-14	전·겸업별 농가 수 및 비중1	8
<b>丑</b> 2-15	전·겸업 농가별 경지규모1	9
丑 2-16	연령별 농가인구2	1
丑 2-17	경제활동 농가인구 분포2	1
丑 2-18	농가인구 학력별 분포(15세 이상)2	3
₹ 2-19	가구원 수 규모별 분포2	3
₩ 2-20	지대별 농가인구 연령충 비중2	5

	<b>丑</b> 2-21	지대별・연령별 농가인구 수, 1990년	27
	丑 2-22	지대별・연령별 농가인구 수, 1995년	28
	班 2-23	연령별 농가인구 수의 연 평균 변화율, 1990~95년	29
	丑 2-24	농업노임 추세(1일 평균)	33
	班 2-25	농업부문 요소의 생산성 및 집약도 지표	34
	丑 2-26	연도별 경영주 연령 분포	37
	<b>班</b> 2-27	연도별 논벼 경영주 연령 분포	37
	丑 2-28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및 학력 현황, 1995년	43
	<b>₹</b> 2-29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1995년	44
	<b>丑</b> 2-30	지대별 농업종사자 인구 수	45
	丑 2-31	지대별 영농 승계자 연령 분포	47
제	3 장		
•	-	농가인구의 전망	55
		연도별·성별 농업주종사자 인구 추정	
		(경제 성장률 시라리오별)	61
	丑 3- 3	경제 성장률 대안에 따른 성별·연령별 농업주종사	자
		증감률(연 평균)	
	丑 3- 4	미작농가 주종사자 연령별ㆍ성별 전망	64
	丑 3- 5	연도별 귀농 경영주 연령 분포	
	丑 3-6	연령별 귀농 이유	
	丑 3- 7	연령별 농촌생활의 불편사항	68
	丑 3-8	영농형태별 연농 애로사항	70
제	4 장		
"	_	비용함수 추정결과	75
	<b>班 4- 2</b>		
		1965~95년	83

제	5 장	
	乗 5- 1	정예인력사업의 유형88
	<b>∄</b> 5- 2	가족농 육성88
	乗 5- 3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별 일반 미작농의 농지 수요와
		전업농의 농지 수요, 2005년91
부	<b>#</b> ;	
	부표 1	연 평균 경제 성장률에 따른 순이농률99
	부표 2	농가인구의 전망: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100
	부표 3	농가인구의 전망: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101
	부표 4	연 평균 경제 성장에 다른 논벼 생산농가의 이농률 $102$
	부표 5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 2000~2005년
		(종전 추세 지속시)103
	부표 6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2000~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104
	부표 7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2000~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가정105

##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국민경제 속의 농림어업부문의 비중 및
	성장률 추세6
그림 2- 2	연도별 주요 생산물 면적 및 생산량 추이7
그림 2- 3	농림수산부문 취업자 추세12
그림 2- 4	연도별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추세, 1962~95년15
그림 2- 5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1990, 1995년20
그림 2-6	연도별 농업취업자의 연령 분포22
그림 2- 7	지대별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1990~95년25
그림 2-8	도시 근교(화성, 평택, 용인, 광주) 및 산간지대(무주
	진안, 영양, 봉화)의 농가인구의 연령별 변화30
그림 2- 9	자본 및 노동집약도 추세31
그림 2-10	농림어업 취업자, 노동집약도,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지수35
그림 2-11	연도별 경영주 연령 분포36
그림 2-12	시도별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1995년38
그림 2-13	시도별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1980년39
그림 2-14	지대별 농가경영주의 연령 분포, 1995년40
그림 2-15	지대별 농가경영주의 연령 분포, 1990년41
그림 2-1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분포, 1995년42

제	3 장	
	그림 3- 1	농가인구 추세 및 전망치, 1980~2005년54
	그림 3-2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54
	그림 3- 3	지대별(평야지대, 산간지대) 농가인구(전망)
		피라미드56
	그림 3-4	농가인구 추세 및 전망치, 1980~2005년 ······58
	그림 3- 5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 1995~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59
	그림 3-6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 1995~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 60
	그림 3- 7	연도별 귀농가구 수 분포66
	그림 3-8	연령별 영농 애로사항71
제	4 장	
	그림 4- 1	주요 농기계의 대당 연간 작업면적 추이80
	그림 4-2	미작 생산요소의 가격지수 변화 추세82

## 圓團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5년말 현재 농림어업 취업자는 2,54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0,37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5%이고 농가인구수는 전체 인구 44,606천명 중에서 4,838천명으로 약 10.8%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생산부문의 생산액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약 23,068.5십억원 (1995년 경상가격)으로 국민총생산의 약 6.6%를 점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전체 국민경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어업취업자와 농가인구 규모는 과거 25년간(1970~95년) 연평균 각각 1.9%, 2.7%씩 감소하여 왔고, 경제할동인구 및 총인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각각 3.0%씩 감소하였다. 특히, 농림업 취업자 및 농가인구수 비중의 연대별 감소율은 시간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가호수의 절대규모 및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체증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생산과 농업취업인구

및 농가인구, 농가호수의 절대 및 상대적 감소는 선진국의 경험과 일 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경제농업부문의 생산 액 비중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농업인구비중 또한 감소하여 왔다. 선 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인구의 노령화는 심화되 었다가 일정한 산업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 여 소멸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계 및 정부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농업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감소되어야 농업부문 생산자 일인당 부가가치가 증가되어 농업도 경쟁력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면 왜 향후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고 다른 일각에서 주장되고 그 주장들이 농업생산자와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는 현재의 농업노동력의 연령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 농가의 50% 이상이 경영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는 고령농가로 변모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고령농가가 자연 은퇴하는 반면 젊은 신규 영농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의 최빈값은 시간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영주 연령의 최빈값이 1970년도 35~39세에서 1980년도 40~45세, 1990년도 50~54세, 1995년도 60~64세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경영주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농업인력 및 농업생산비중의 감소속도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험과 달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젊은 노동력의 신규유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비농업부문과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상대적 생산성은 감소하였다. 농업인력의 감소와 함께 농업생산부문의 생

<sup>&</sup>lt;sup>1</sup> 1990~95년 사이 농가인구는 2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이 상대적 증가하는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아시아 소농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에서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전체 취업자에서 농업생산부문 취업자의 비중이각각 7%와 16%에 도달하는 시간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3~7배 정도빠르게 진행되었다.

급속한 농업인력의 감소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대체되기 어렵고 그 결과 국민의 먹거리 자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은 정부로 하여금 「정예농업인력 육성」 정책과 함께 고령경영주의은퇴유도 등 농업구조개선 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후계인력양성, 전업농육성, 영농조합법인 양성,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 나아가 은퇴농 지원사업 등 전통적인 농업인력육성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신규및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 농업부문의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는 농업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농가인구의 이농속도와 연령구조 하에 정부의 정예인력육성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나아가 정예인력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농업인력은 토지·자본과 함께 농업생산의 3대 요소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부족한나라에서는 농업인력을 어떻게 육성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농업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인력의 현황, 지역 및 영농형태별 속성분석과 함께 2000년대 초 농업인력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효율적인 농업투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개발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인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① 농업생산부문 인력의 연령별·지역(지대)별, 영농형태별 분석과, ② 중·장기 전망을 통하여 2000년 대 초 농업생산인력의 규모를 연령별, 지역별, 영농 형태별로 파악하여, ③ 향후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총체적 양과 질적 수준을 가늠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력 개발정책이 어 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과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 3. 연구의 방법

- 1) 농가인구 및 농업생산부문 인력 분석 및 전망: 2차 자료를 이용 한 코호트(Cohort) 분석 방법
- 2) 생산요소간 교차 가격탄력도 추정: 2차 자료 이용
- 3)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영농애로 사항: 현지 조사자료
- 4) 정책분석 및 개선방향: 농림부 내부자료 및 현지조사 자료

#### 제 2 장

### 농업생산부문의 구조와 인력 현황

이 장에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생산요소의 일환으로서 농업인력의 이용패턴 및 속성의 변화를 국민 경제 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장은 3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생산부문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노동시장의 비중, 농지이용율의 변화 등 「농업생산부문의 구조변화」, 지역별・영농형태별「농가인구의 구조변화」, 이에 따른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성 및 농업노임 등 농업부문의 거시지표, 농가경영주의 연령 및 학력, 영농 승계자에 따른 「농가호수 및 경영주의 속성」 등이 분석된다.

#### 1. 농업생산부문의 구조 변화

#### 1.1. 연도별 농업생산부문의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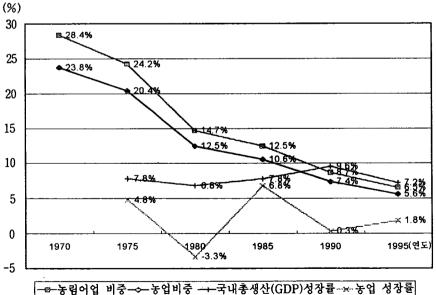
지난 25년 동안 농림어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1970 년 28.4%에서 1995년 6.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sup> 성장

<sup>&</sup>lt;sup>2</sup> 농림어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7.2%, 1975년 25.3%, 1980년 15.2%, 1985년 12.9%, 1990년 8.7%이다.

률 또한 국내총생산의 그것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서 부침을 거듭하여 왔다. 농업생산부문의 비중은 1995년 국내총생산의 5.6%에 불과하고 지난 25년간 연평균 국민경제성장률이 약 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농업은 연평균 2%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체 성장률 또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한 원인을 농업내·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급 진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업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농업부문의 부침을 초래한 외부적 요인이라 하면, 이러한 외부적 여건 변화에 농업생산 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농업내 부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농업부문의 성장의 부침을 농업내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sup>3</sup>

그림 2-1 국민경제 속의 농림어업부문의 비중 및 성장률 추세



3 내부적 요인은 본장의 제 2절과 3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이정환(1998)
 은 농업내부의 요인을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품목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 1.2. 품목별 농업생산 비중 : 영농형태의 다양화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동안 주요 농작물의 생산면적 및 생산 량을 비교하면 (그림 2-2)와 같다. 쌀, 맥류, 두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경제작물인 채소와 과수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의 식부면적은 연평균 약 1.8%씩, 생산량은 연평균 0.5%씩 감소하였고 채소류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5.6%, 19.1%씩, 과수류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0.2%, 21.4%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식량작물 중심에서 경제작물로의 작부체계의 이동은 과 거 30년 동안 상업농의 진전이 착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반영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1990~95년 동안 급격한 영농형태의 다양 화로 이어 진다.

1990년과 대비하여 1995년도 농가의 영농형태는 벼농사나 전작에 의존하는 농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채소·축산·과수·화훼등의 작목으로 다변화되었다. 논벼 농가비중은 1990년도 69.7%에서 1995년

(면적: 천 ha) (생산량: 천 M/T) 3,500 12,000 3,000 10,000 2,500 8,000 2,000 6.000 1,500 4.000 1,000 2.000 식량작물(면적) 채소(면적) 파우(면적) <del>-노-</del> 채소(생산량) ₩-- 과수(생산량) 

그림 2-2 연도별 주요 생산물 면적 및 생산량 추이

표 2-1 영농형태별 농가 수

단위: 천호, (%)

	논 벼	채 소	축 산	과수	화 훼	전작 등
1000	1,232	172	89	107	6	161
1990	(69.7)	(9.7)	(5.0)	(6.1)	(0.4)	(9.1)
	823	247	156	144	10	121
1995	(54.8)	(16.4)	(10.4)	(9.6)	(0.7)	(8.1)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도 54.8%로 연평균 4.3%씩 감소한 반면 채소·축산·과수·화훼 농가비중은 1990년도 21.2%에서 1995년도 37.1%로 연평균 1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는 1990년도 89천 농가에서 1995년 156천 농가로 연평균 약 15.1%씩 증가하였고 비중은 연평균 2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작을 제외한 영농형태 중에서 채소농가는 시설채소, 축산 농가는 한육우, 과수농가는 배·포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채소농가 중 시설농가비중은 1990년 22.8%에서 1995년 29.0%로, 축산농가중 한육우 농가비중은 1990년 29.5%에서 1995년 62.7%로, 과수농가중 배·포도농가비중은 1990년 21.9%에서 1995년 29.0%로 각각 중가하였다.

표 2-2 채소・축산・과수농가의 품목별 농가 비중

단위: %

품목 연도	채 소.	축 산	과 수
1990	일반 : 77.2 시설 : 22.8	한육우: 29.5 젖 소: 26.8 돼 지: 24.1 닭 : 10.7 기 타: 8.9	사 과: 36.3 배 : 6.6 포 도: 15.3 감 귤: 17.3 복숭아: 11.6
1995	일반 : 71.0 시설 : 29.0	한육우: 62.7 젖 소: 12.1 돼 지: 10.7 닭 : 5.5 기 타: 9.1	사 파: 28.9 배 : 8.0 포 도: 21.0 감 귤: 15.9 복숭아: 7.7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표 2-3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가 수, 1995년

단위: 천호. (%)

총 농가수 미	만 1,000	3,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1,501 30 (100.0) (20		370 (24.7)	54 (3.6)	(0.7)	3 (0.2)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년

이와 같이 영농형태가 다양해지고 농업경영이 전문화·규모화되면서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되었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농가수는 1,375천호로서 전체 농가의 91.6%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고수입 농가가 14천호로서 전체의 0.9%에 달한다.

한편 1995년도의 영농형태에 따른 상업화 정도를 살펴보면 채소·과수·축산·화훼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이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 농가는 논벼 위주의 농가가 0.2%, 채소농가 0.7%, 과수농가 1.5%, 축산농가 4.4%, 화훼농가 4.3%로서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영농하는 농가의 판매금액이 그렇지 못한 농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영농형태별 농축산 판매금액 규모, 1995년

단위: 천호, (%)

	합계	논벼	채소	과수	축산	화훼	전작 등
ネ レコ人	1,501	823	247	144	156	10	121
총 농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만원	1,063	674	150	71	74	4	91
미만	(70.8)	(81.9)	(60.9)	(49.2)	(47.7)	(35.5)	(74.5)
1,000~	370	138	81	61	59	5	26
3,000	(24.7)	(16.8)	(33.0)	(42.3)	(37.6)	(45.3)	(22.3)
3,000~	54	10	13	10	16	1	3
5,000	(3.6)	(1.2)	(5.4)	(6.9)	(10.4)	(14.9)	(2.6)
5,000만원	14	1	3	2	7	0.4	0.7
이상	(0.9)	(0.2)	(0.7)	(1.5)	(4.4)	(4.3)	(0.6)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논벼	과 수	채 소	축 산	화 훼	기타
수 매	공판장	수집상	수집상	수집상	수 매
(73.2%)	(35.5%)	(37.2%)	(34.5%)	(30.1%)	(29.7%)
수집상	계통출하	재래시장	재래시장	공판장	수집상
(7.5%)	(27.9%)	(17.9%)	(33.7%)	(23.0%)	(22.0%)
재래시장	수집상	계통출하	계통출하	계통출하	재래시장
(4.4%)	(21.9%)	(17.8%)	(17.0%)	(12.6%)	(18.7%)
		수 매			
		(17.8%)			

표 2-5 영농형태별 주요 농축산물 판매방법, 1995년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판매방법은 영농분야별로 다소 다르나 전반적으로 수매, 산지 수집 상 등에 편중되어 있다. 논벼위주 농가는 수매를 통한 판매가 73.2%, 과수위주 농가는 공판장 35.5%, 계통출하 27.9%, 채소위주 농가는 산지수집상 37.2%, 재래시장 17.9%, 축산위주 농가는 산지수집상 34.5%, 재래시장 33.7%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태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다. 지역에 따라 특정 작물중심으로 영농이 특화 되어있고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인력, 시장거래규모, 판매방법 등 농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영농형태의 특화정도에 따른 지역농업의 구조는 농업인력의 속성 및 성격을 규명한다고 할 수 있다. 농작물의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른 영농형태의 특화정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특화계수를 정의한다.

특화계수 =  $\frac{\text{도내 영농형태별 농가 수 } / \text{ 도내 총농가 수}}{\text{전국 영농형태별 농가 수 } / \text{ 전국 총농가 수}}$ 

특화계수에 따른 지역 농업의 특화정도를 주요 작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벼는 전통적인 농도라 알려진 전북과 전남이 특화 되어 있고, 과수는 감귤의 생산지인 제주와 사과 주산단지인 경북,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del>전북</del>	제주	강원	충북	경기	제주	경기
(1.29)	(6.02)	(1.20)	(3.34)	(3.53)	(4.72)	(1.46)
전남	경북	경남	경북	제주	강원	경남
(1.14)	(2.27)	(1.16)	(1.55)	(1.50)	(3.70)	(1.41)
경기	충북	경북	강원	경남	전남	충남
(1.08),	(1.20)	(1.05)	· (1.43)	(1.12)	(1.59)	(1.04)

표 2-6 영농형태별 지역 특화계수, 1995년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채소류는 고냉지 채소로 특화 되어 있는 강원지역과 시설하우스로 재배되는 경남지역이 특화 되어 있고, 축산은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와 인접하여 있는 경기지역과 대도시 인접의 경남지역,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큰 화훼류의 경우 수도권 주위의 경기지역과 공급측면에서 재배기후여건의 특성상 제주지역과 경남지역에 또한 특화 되어 있다.

한편 지역별 가축사육 규모는 (표 2-7)과 같다. 평균적으로 가축사육은 대도시의 소비층과 인접한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신선도를 우선시하는 낙농의 경우 수도권인근지역인 경기지역에 중점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한육우는 경북, 전남, 충남, 경남의 순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산되어 사육되고 있다.

표 2-7 지역별 가축 사육규모, 1995년

단위: 천두. (%)

								G 11. C	. 1 , (/0/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한육우	2,554	224	173	168	377	204	442	504	369
	(100.0)	(8.8)	(6.8)	(6.6)	(14.8)	(8.0)	(17.3)	(19.7)	(14.4)
젖 소	517	207	23	28	77	37	35	43	41
	(100.0)	(40.0)	(4.5)	(5.5)	(14.9)	(7.1)	(6.7)	(8.3)	(7.9)
돼 지	6,007	1,524	228	269	1,093	525	512	692	755
	(100.0)	(25.4)	(3.8)	(4.5)	(18.2)	(8.7)	(8.5)	(11.5)	(12.6)
닭	91,100	27,753	4,027	5,142	1,228	11,002	7,737	12,804	7,232
	(100.0)	(30.5)	(4.4)	(5.6)	(13.5)	(12.1)	(8.5)	(14.1)	(7.9)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 1.3. 농업부문 취업자 및 농가호수의 변화 추세

농가인구와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농업생산액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지난 25년간 급속하게 감소하여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5년 말 현재 농림어업 취업자는 2,54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0,37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 농가인구수는 전체 인구 44,606천명 중에서 4,838천명으로 약 10.8%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 생산액은 약 23,068.5십억원 (경상가격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의 약 6.6%를 점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일인당 생산액은 전체 국민경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1970년, 1980년, 1990년 농림어업 취업자(농가인구)의 비중은 각각 50.4%(44.7%), 34.0%(28.4%), 18.3%(15.5%)로서 지난 25년 동안 절대적 규모 뿐만 아니라 상대적 규모가 감소하였다.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의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지난 25년간 농림부문의 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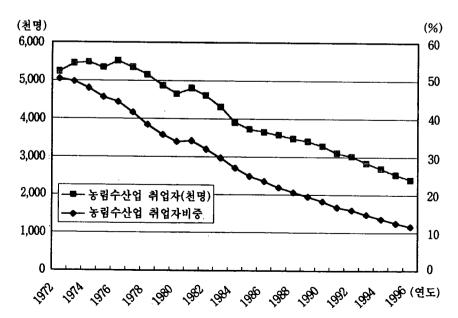


그림 2-3 농림수산부문 취업자 추세

표 2-8 농림어업 취업자,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변화율 추세

단위: %

구분	농림어업 취업자		농가역	인구수	농가호수	
연도	규 모	비중	규 모	비중	규 모	비중
1970년대	0.0	-3.2	-2.7	-3.9	-1.3	-3.6
1980년 대	-3.0	-4.7	-4.1	-4.8	-2.0	-4.2
1990~95	-4.5	-6.3	-5.5	-6.0	-3.0	-5.1
1970~1995	-1.9	-3.0	-2.7	-3.0	-1.6	-2.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각 연도.

당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취업자와 농가인구 규모는 과거 25년간 연평균 각각 1.9%, 2.7%씩 감소하여 왔고, 경제활동인구 및 총인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각각 3.0%씩 감소하였다. 농어업 취업자 및 농가인구수는 체증적으로 감소하였고 농가호수의 감소보다 농가인구의 감소가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농림어업 취업자의 절대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3.2%씩 감소하였다는 것은 농림업부문에 과잉취업(under-employment) 되어 있는 유휴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의 변화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농가호수의 감소보다 농가인구의 감소가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농가인구 중에서 상당부분이 비농업부문으로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농가인구 및 농림어업 취업자의 국민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절대규모까지 감소하였다는 것은 동기간 전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각각 1.2%, 0.8%라는 것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부문과 농촌지역이 비농업부문과 도시지역에 대하여소득원과 삶의 터로서 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990년대 농촌인구의 절대 감소인구와 감소율이 농가인구의 감소인구와 감소율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나 비농

<sup>4</sup>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중 = 농림어업 총생산액/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

표 2-9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단위: %

가구 및	연도	1985	1990	1985~90 중 감 <비율>	1995	1990~95 중 감 <비율>
가	총 가 구(A)	9,571	11,357	1,786	12,961	1,604
구	농 가 구(B)	1,926	1,767	△159	1,501	△266
(천호)	(B/A)	(20.1)	(15.6)	<△8.3>	(11.6)	<∆15.1>
	총 인 구(A)	40,448	43,411	2,963	44,406	995
인	농촌인구(B)	14,005	11,102	△2,903	9,572	△1,530
구	(B/A)	(34.6)	(25.6)	<△20.7>	(21.5)	<△13.8>
· (천명)	농가인구(C)	8,521	6,661	△1,860	4,851	△1,810
(20)	(C/A)	(21.1)	(15.3)	<△21.8>	(10.9)	<△27.2>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업부문에 종사하는 재촌탈농형 농가인구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서 우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연도별 호당 평균 경영규모 및 농경지 변화

지난 25년 동안 농가호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경지면적은 완만하게 감소한 결과 농가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증가하였다. 농가호수는 1967년도 2,587천 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995년도에 1,499천 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농경지면적은 1968년도 2.319천ha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1995년도에 1,985천ha를 기록함으로써 국토면적의 20.0%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농경지면적의 감소율보다 농가호수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점차 증가하여왔고 그 결과 호당 평균

<sup>5</sup> 농가인구의 절대 감소폭: (1985~90) △1,860천명 → (1990~95) △1,810천명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 (1985~90) △4.9% → (1990~95) △6.1% 농촌인구 감소폭: (1985~90) △2,903천명 → (1990~95) △1,530천명 총인구중 농촌인구비중: (1985) △34.6% → (1990) 25.6% → (1995) 21.5%

표 2-10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연 평균 증감률

단위: %

기간 항목	1962-69	1970년대	1980년대	1990~95
농가호수	0.44	-1.63	-1.99	-2.79
경지면적	1.50	-0.46	-0.37	-1.15

자료: 농림부, 「농림수산주요통계」, 각 연도.

경지면적은 1978년도에 1ha, 1995년도에는 1.32ha로 증가하였다. 농가호수와 농경지의 감소율은 (표 2-10)과 같이 정리되는데 농가호수는 점차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그 경향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가호수의 변화율은 1970년대 연평균 -1.63%에서 1980년대 -1.99%, 1990년대에는 -2.79%를 보이고 있다. 농경지면적의 변화율은 1970년대 연평균 -0.46%, 1980년대 -0.47%, 1990년대 -1.15%를 보임으로써 1990년대 접어들어 농경지

그림 2-4 연도별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추세, 1962~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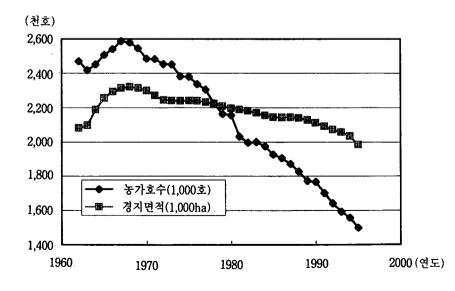


표 2-11 휴경농지 사유별 면적

단위: 백ha. (%)

연 도	계	노 동 력 부 족	영농조건 불 량	부재지주 소 유	기타
1992	689	296	148	184	61
	(100.0)	(42.9)	(21.5)	(26.7)	(8.9)
1993	665	306	148	182	29
	(100.0)	(46.0)	(22.3)	(27.4)	(4.3)
1994	625	277	154	174	20
	(100.0)	(44.3)	(24.6)	(27.8)	(3.3)
1995	646	275	182	169	20
	(100.0)	(42.6)	(28.1)	(26.2)	(3.2)
1996	343	125	140	78	_
	(100.0)	(36.6)	(40.6)	(22.8)	

자료: 농림부, 농정기획담당관실, 「내부업무자료(1997.7)」.

감소속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농경지의 감소와 함께 농경지가 휴경 되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휴경지가 비농업용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농경지의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노동력의 부족 문제는 농업생산의 지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농업생산부문 전ㆍ겸업별 농가호수 및 경지규모

지난 5년 동안 영세소농구조 속에서도 경영규모의 확대가 진전되었다. 특히 대규모 경영농가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ha 이상 경영농가수는 1990년 43.7천호(2.5%)에서 1995년 71천호(4.7%)로 연평균 약 12.5%씩 증가하였다. 5ha이상 경영농가수는 1990년 6.7천호(0.4%)에서 1995년 16천호(1.0%)로 연평균 약 27.8%, 10ha이상

<sup>6 1996</sup>년도 휴경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쌀증산운동의 일환으로써 휴경지 방지운동의 결과이다. 그 결과 경작조건이 열악한 농경지까지 경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6년도 휴경지 발생 사유는 종전과 달리 "영농조건의 불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2 경지규모별 농가 수

단위: 천호. (%)

규모 연도	합 계	lha 미만	1~3	3~5	5~10	10ha 이상
1990	1,767 (100.0)	1,051 (59.6)	673 (38.0)	37 (2.1)	6 (0.3)	0.7 (0.0)
1995	1,501 (100.0)	889 (59.2)	541 (36.1)	55 (3.7)	14 (0.9)	2 (0.1)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경영농가는 1990년도 0.7천호(0.0%)에서 1995년도 2천호(0.1%)로 연평균 약 37.1%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3ha 이상의 대규모 경영 농가수는 증가하는 동시에 3ha 미만의 중소규모의 농가수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경영의 패턴은 소규모 경영농가 일수록 겸업화하고 대규모 경영농가 일수록 전업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1ha미만 농가 중 전업농가비율은 51.5%로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영세전업농이 많으나<sup>7</sup> 5ha이상 농가 중 전업농가 비율은 68.8%로서 겸업화 농가비율 31.2%의 배가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농가수와 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농외취업을 겸하는 겸업농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겸업농가의 수는 1985년도 408천호(21.2%)에서 1990년 715천호(40.5%), 1995년 652천호(43.4%)로 농가에서 점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체 농가수는 줄어드는데 반하여 겸업농의 절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겸업농 중에서도 농외소득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하는 겸업위주 농가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겸업농가중 농외소득을 농가의 주수입원으로 하는 겸업위주 농가

<sup>&</sup>lt;sup>7</sup> 1ha 미만 농가의 전업농 비율이 겸업농보다 더 높은 것은 전업농 중 고령 화농가 및 부녀단독 농가 등 한계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13 경지규모별 전·겸업 농가 분포, 1995년

단위: 천호. (%)

	합계	1ha 미만	1~3	3~5	5ha 이상
총농가	1,501	889	541	55	16
전업농	849	458	343	37	11
	(56.6)	(51.5)	(63.4)	(67.3)	(68.8)
겸업농	652	431	198	18	5
	(43.4)	(48.5)	(33.6)	(33.7)	(31.2)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표 2-14 전·겸업별 농가 수 및 비중

단위: 천호. (%)

농가	レカム	전 업 농	가 어 노		
연도	·	겸 업 농	농업위주	겸업위주	
1985	1,926	1,518	408	168	240
1900	(100.0)	(78.8)	(21.2)	(8.7)	(12.5)
1990	1,767	1,052	715	389	326
1990	(100.0)	(59.5)	(40.5)	(22.0)	(18.5)
1995	1,501	849	652	277	375
1990	(100.0)	(56.6)	(43.4)	(18.4)	(25.0)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수는 1985년 240천호로서 전체 농가의 12.5%에 불과하였는데 1990년에는 326천호로 전체 농가의 18.5%로 증가하였고 1995년도는 375천호로 전체의 25.0%를 점함으로써 전체농가의 약 1/4이 비농업활동을 주소득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농가수가 감소하는 반면 농외소득을 농가의 주수입으로 하는 겸업위주의 농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농업소득의 불충분과 농업소득의 기대수익이 비농업부문에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농가수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전업농의 영농규모는 확

<sup>8 1980</sup>년대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농가교역지수는 100이하의 수준에서 형 성되고 있다. 농가교역지수=(농가판매가격총지수/농가구입가격총지수)×100

표 2-15 전ㆍ겸업 농가별 경지규모

단위: 천호, (%)

유형	영농규모	합계	lha 마 만	1~2	2~3	3~5	5ha 이 상
-	1990	1,052	567	362	92	27	4
전업	1990	(100.0)	(53.8)	(34.4)	(8.7)	(2.5)	(0.5)
신점	1005	849	458	261	82	37	11
	1995	(100.0)	(53.9).	(30.8)	(9.6)	(4.4)	(1.2)
	1000	715	484	181	38	10	2
겸업	1990	(100.0)	(67.7)	(25.3)	(5.3)	(1.4)	(0.3)
石石	1005	652	431	157	41	18	5
	1995	(100.0)	(66.1)	(24.0)	(6.4)	(2.7)	(0.8)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농가중 3ha이상을 영농하는 전업농가는 1990년도 31천호(3.0%)에서 1995년도 48천호(5.6%)로 5년 동안 연평균 11.0%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겸업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규모 또한 1990년 12천호(1.7%)에서 23천호(3.5%)로 연평균 약 18.3%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ha 이상을 경영하는 농가수는 전·겸업 불문하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겸업농가의 대규모화 속도가 전업농가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데에서 그 동안 농지유동화를 통한 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2. 농가인구의 구조 변화

이 절에서는 농업생산부문에서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농가구성원의 인적구조를 연령별·학력별 분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농가구원의 연령구조와 이농구조를 지역(지대)별로 분석한다. 도시근교지역과 산간지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의적으로 8개의 지역을 선택하여 연령구조 분석을 병행한다.

#### 2.1. 농가인구 및 농업생산부문 취업자의 연령별 변화 추세

1990~95년 동안 농가인구는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도 농가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구간은 남녀 모두 10대 말(15~19세)에서 1995년도는 남녀 모두 50대 말(55~59세)로 바뀜으로써 지난 5년 사이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취업 및 결혼, 대학 진학 등으로 20대 농가구성 원의 급격한 이농이 발생하여 20대의 농가인구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 중에서도 20대 초반인구의 이농이 급격하게 이루어졌 다). 그러나 30~50대 농가인구는 비록 감소하였으나 전체 농가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21.7%에서 1995년 21.7%로 지난 5년 사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1990년의 17.8%에서 1995년 25.8%로 증가) 절대규모 또한 증가하였다(1990년 1,188천명에서 1995년 1,254천명으로 증가). 총인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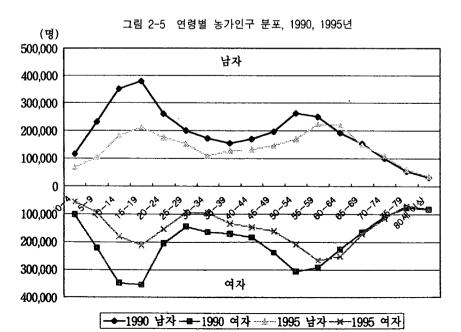


표 2-16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명. (%)

연령 연도	합계	15세 미만	1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1990	6,661	1,370	1,543	662	787	1,111	1,188
	(100.0)	(20.6)	(23.2)	(9.9)	(11.8)	(16.7)	(17.8)
1995	4,851	681	998	464	587	867	1,254
	(100.0)	(14.0)	(20.6)	(9.6)	(12.1)	(17.9)	(25.8)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에서 60세 이상이 점하는 비중이 1990년 7.6%에서 1995년 9.5%로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64세의 생산연령층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비중은 1990년도 11.5%에서 1995 년도 16.2%로 증가하였으나 15~64세의 생산연령층의 인구비중 또한 1990년 67.9%에서 1995년도 69.8%로 증가하였다.<sup>9</sup>

생산연령층과 고령층이 증가한 반면 유년층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생산연령층 중에서 30~40대 인구 중심으로 이농이 이루어 졌고 따라서 14세 미만의 유년층이 격감하였기 때문이다. 14세 미만의 유년층이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20.6%에서 1995년도 14.0%로 감소하였다.

표 2-17 경제활동 농가인구 분포

단위: 천명, (%)

연령 연도	계	15세 미만	15~64	65세 이상
1990	6,661	1,370	4,521	770
	(100.0)	(20.6)	(67.9)	(11.5)
1995	4,851	680	3,387	784
	(100.0)	(14.0)	(69.8)	(16.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각 연도.

<sup>&</sup>lt;sup>9</sup> 총 인구중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 69.4%에서 1995년 70.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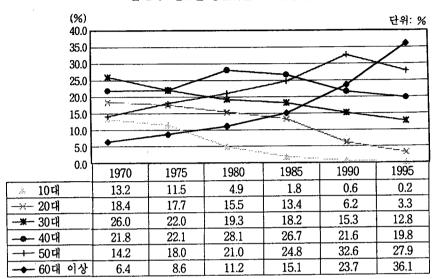


그림 2-6 연도별 농업취업자의 연령 분포

이와 같이 농가인구의 노령화는 농업생산부문 취업자의 고령화로 연 결된다. 연도별 농업부문의 취업자의 연령분포는 위의 그림과 같다.

농업생산부문 취업인력은 25년간(1970~95년) 30대 이하의 젊은 노동력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50대와 60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어 60대 이상의 취업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농업생산부문의 취업노동력의 고령화가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농가인구의 고학력화 진전

1995년 말 현재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아직도 50%이상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5세 농가인구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 농가인구 비중은 1990년 56.3%에서 1995년 54.3%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졸업이상 농가인구비중은 1990년 27.7%에서 1995년도 30.3%로 증가하였다.

표 2-18 농가인구 학력별 분포(15세 이상)

단위: 천명. (%)

학력 연도	합계	초등학교. 이 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 상
1990	5,291	2,977	847	1,245	222
	(100)	(56.3)	(16.0)	(23.5)	(4.2)
1995	4,171	2,263	644	1,005	257
	(100)	(54.3)	(15.5)	(24.1)	(6.2)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비록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15세 이상의 전국 인구 중에서 고졸이상 인구비중은 1990년 50.0%에서 1995년 57.8%로 증가하였다) 고졸 이상의 학력 비중이 증가하고있다는 것은 향후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본 형성에 청신호라 할 수 있다.

#### 2.3. 핵가족화의 진전

1995년 말 현재 농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3.2명으로 전국 평균의 3.3명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농가구비중이 22%로써 비교적 많은 편이나, 2인 이하의 가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가구원수 2인 이하인 농가구의 비중은 1990년 29.4%에서

표 2-19 가구원 수 규모별 분포

단위: 천호, (%)

		합 계	1~2인	1인	3~4인	5인 이상
총가구	1990	11,355	2,588	1,022	5,514	3,253
		(100.0)	(22.8)	(9.0)	(48.6)	(28.6)
	1995	12,961	3,887	1,650	6,755	2,319
		(100.0)	(30.0)	(12.7)	(52.1)	(17.9)
농가구	1990	1,767	520	119	650	597
		(100.0)	(29.4)	(6.7)	(36.8)	(33.8)
	1995	1,501	643	150	524	334
		(100.0)	(42.9)	(10.0)	(34.9)	(22.2)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1995년 42.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가구의 핵가족화로의 진전은 젊은 농가구원의 이농으로 말미암아 이농의 기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령농가구원 들이 잔존하고 있고 이들이 단독 또는 고령 부부가 구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 및 2인 이하의 단독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향후 농업부문에 취업노동력 또는 영농대행이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농가인구의 지역별 연령구조 변화®

지역별 농가인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136개 시·군을 지대별로 구분하였다. 지대구분은 농촌진흥청의 「표준영농소득」에 분류된시·군별 지대구분인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활용하였다. 단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제외하였다.

#### 2.4.1. 농업지대의 농가인구 고령화

1990~95년도의 지대별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는 지대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양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대와 관계없이 1990년도에는 10대 후반이 1995년도에는 50대의 인구 비중이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95년의 5개년 동안 생산연령 층이라 분류될 수 있는 15~64 세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지대에 관계 없이 이들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생산연령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것은 14세 미만의유년층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이들의 부모세대인 30~40대의장년층이 지대와 무관하게 격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sup>lt;sup>10</sup> 영농형태에 따라 농업인력의 연령분포가 상이하고 지역별로 영농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농업구조에 따라 농업인력의 성격 및 속성이 상이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농가인구의 속성을 지대별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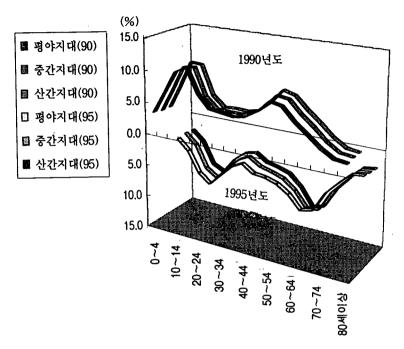


그림 2-7 지대별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1990~95년

표 2-20 지대별 농가인구 연령층 비중

단위: %

	199	0년	1995년			
•	15~64세	65세 이상	15~64세	65세 이상		
평야지대	평야지대 68.6		70.5	15.0		
중간지대	중간지대 67.5		69.5	16.7		
산간지대	66.9	12.2	68.7	17.5		
합 계	67.9	11.5	69.8	16.2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 2.4.2. 지대별 농가인구구조 상이

그러나 지대별로 농가인구의 연령구조 및 연령별 감소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44세 이하의 장년층의 비중은 평야지대가 중·산간지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5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평야보다 중간, 중

간보다 산간지대가 더 많음으로써 중·산간지대의 인구고령화가 평 야지대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야지대는 농외소득원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시설, 문화시설, 인접지역과의 근접성 등 사회간접시설이 다른 농업지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30~40대 청장년층의 비중이 산간 및 중간지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생산연령 층이라 분류될 수있는 15~64세 인구의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64세 인구비중은 평야지대가 중간지대, 중간지대가 산간지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의 순으로나타났다(표 2-21, 표 2-22, 표 2-23 참조).

한편 농가인구의 감소율 또한 지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1990~95년 5년간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 6.4%인데 평야지대가 6.7%, 중 간지대 6.0%, 산간지대 6.6.%로 감소로 중간지대의 감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야지대의 인구감소율이 중간지대보다 높은 것은 미작 위주의 단순 영농형태가 많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산간지대의 인구감소율이 중간지대보다 높은 것은 생활편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농가인구의 감소율은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대에 따라 연평균 15.0~18.0%로 감소하고 있다. 10대 후반의 농가인구가 높게 나타났다가 2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농외취업원과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 및 산간지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산간지대가 평야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농외소득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시설(대학)에로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접어들 때에도 급격한 농가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과 취업등으로 이들 연령층 인구가

표 2-21 지대별·연령별 농가인구 수, 1990년

단위: 명, (%)

전대 명하지 남 여 함께 12938 141,293 144,883 40,054 84,937 35,732 31,752 67,484 29,864 26,561 56,425 5-9세 86,877 82,690 169,567 73,914 70,906 144,820 62,169 59,124 121,293 10-14세 127,929 126,456 254,385 114,002 112,967 226,969 96,302 96,206 192,508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10대이하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 11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3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90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0) (10.0) (10.0)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404 10,30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7.2) (7.4) (10.0)								117. 8, (/0)			
10-4세   44,883   40,054   84,937   35,732   31,752   67,484   29,864   26,561   56,425   5-9세   86,877   82,690   169,567   73,914   70,906   144,820   62,169   59,124   121,293   10-14세   127,929   126,456   254,385   114,002   112,967   226,969   96,302   96,206   192,508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10대이하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44M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M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M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M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M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M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5)   (11.6)   (11.6)   (11.6)   (11.9)   (11.5)   (11.6)   (11.6)   (11.6)   (11.6)   (11.9)   (11.5)   (11.6)   (11.6)   (11.6)   (11.6)   (11.6)   (11.6)   (11.9)   (11.5)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	지대		평야지대			중간지다	)		산간지	대	
19-9세   86,877   82,690   169,567   73,914   70,906   144,820   62,169   59,124   121,293   10-14세   127,929   126,456   254,385   114,002   112,967   226,969   96,302   96,206   192,508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10대이라   33,11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6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M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M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M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M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M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1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M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M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 M 이 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연령	남	역	합계	남	여	합계	남_	여	합계	
10-14세 127,929 126,456 254,385 114,002 112,967 226,969 96,302 96,206 192,508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10대이하 (33.1)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0,291 1,220,181 1,22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0-4세	44,883	40,054	84,937	35,732	31,752	67,484	29,864	26,561	56,425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10대이화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2,301 12,201 1,769,979	5-9세	86,877	82,690	169,567	73,914	70,906	144,820	62,169	59,124	121,293	
10대이하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2,20,11,20,12,20,12,20,12,20,13,20,1	10-14세	127,929	126,456	254,385	114,002	112,967	226,969	96,302	96,206	192,508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11,342 1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15-19세	143,842	135,880	279,722	120,251	112,172	232,423	98,896	91,201	190,097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 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 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81 31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10대이하	(33.1)	(30.7)	(31.8)	(32.7)	(30.3)	(31.3)	(33.0)	(30.4)	(31.7)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0) (7.5) (66.4) (5.9) (8.2) (7.0) (62.2) (8.2) (7.2) (7.2) (12.0) 12,001 (11.0) (12.5) (12.0) (	20-24세	102,717	82,552	185,269	80,718	61,235	141,953	64,218	46,828	111,046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7.2) 11,200,101 (1.2)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 (1.20,101,101,101) (1.20,101,101,101) (1.20,101,101,101,101,101,101) (1.20,101,101,101,101,101,101,101,101,101,1	25-29세	79,865	57,548	137,413	62,027	44,004	106,031	47,769	35,245	83,014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20대	(15.0)	(11.2)	(13.0)	(13.6)	(9.6)	(11.6)	(12.9)	(9.1)	(11.0)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30-34세	67,452	63,386	130,838	53,567	51,710	105,277	43,710	1,759	85,469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35-39세	59,744	64,566	124,310	49,460	54,954	104,414	40,015	43,652	83,667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0) 1,269,979	30대	(10.4)	(10.2)	(10.3)	(9.8)	(9.8)	(9.8)	(9.6)	(9.5)	(9.6)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40-44세	64,575	67,757	132,332	54,809	59,349	114,158	43,518	47,939	91,457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45-49세	73,366	86,486	159,852	63,347	77,001	140,348	51,635	65,015	116,650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40대	(11.3)	(12.3)	(11.8)	(11.2)	(12.5)	(11.9)	(10.9)	(12.6)	(11.8)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50-54세	95,411	109,810	205,221	85,113	99,969	185,082	72,279	85,436	157,715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55-59세	90,478	105,261	195,739	82,141	97,077	179,218	68,872	79,270	148,142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50대	(15.2)	(17.1)	(16.2)	(15.9)	(18.0)	(17.0)	(16.2)	(18.3)	(17.3)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60-64세	67,422	80,595	148,017	63,935	75,302	139,237	53,706	62,392	116,098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65-69세	53,421	58,001	111,422	51,398	54,979	106,377	43,432	45,115	88,547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60대	(9.9)	(11.0)	(10.5)	(11.0)	(11.9)	(11.5)	(11.2)	(12.0)	(11.6)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70-74세	34,278	38,838	73,116	32,971	35,738	68,709	28,787	29,930	58,717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75-79세	18,264	27,078	45,342	17,831	25,405	43,236	15,796	20,977	36,773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80세이상	10,394	28,645	39,039	10,739	27,927	38,666	9,690	22,671	32,361	
of 24 (	70대이상	(5.2)	(7.5)	(6.4)	(5.9)	(8.2)	(7.0)	(6.2)	(8.2)	(7.2)	
H 7	하게	1,220,918	1,255,603	2,476,521	1,051,955	1,092,447	2,144,402	870,658	899,321	1,769,979	
	H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1990)」에서 재계산.

표 2-22 지대별·연령별 농가인구 수, 1995년

단위: 명, (%)

지대		평야지	대		중간지	대		산간지	대
연령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0-4세	25,672	21,940	47,612	20,368	17,066	37,434	16,595	14,047	3,064
5-9세	39,581	36,205	75,786	32,903	29,369	62,272	26,903	24,190	51,093
10-14세	68,346	66,175	134,521	59,549	58,157	117,706	47,683	47,058	94,741
15-19세	80,618	79,368	159,986	69,322	69,246	138,568	52,678	53,538	106,216
10대이하	(24.5)	(22.6)	(23.5)	(23.5)	(21.3)	(22.4)	(23.2)	(21.3)	(22.2)
20-24세	67,978	59,530	127,508	57,139	49,440	106,579	41,204	34,034	75,238
25-29세	59,021	36,190	95,211	48,711	29,218	77,929	35,382	21,455	56,837
20대	(14.6)	(10.6)	(12.5)	(13.7)	(9.7)	(11.6)	(12.4)	(8.5)	(10.4)
30-34세	41,886	36,710	78,596	34,222	29,511	63,733	26,588	24,031	50,619
35-39세	49,438	50,734	100,172	40,770	42,368	83,138	32,571	33,625	66,196
30대	(10.5)	(9.7)	(10.1)	(9.7)	(8.8)	(9.2)	(9.5)	(8.8)	(9.2)
40-44세	49,851	54,300	104,151	42,559	48,219	90,778	33,922	37,423	71,345
45-49세	54,797	58,766	113,563	48,066	53,048	101,114	37,250	42,035	79,285
40대	(12.0)	(12.5)	(12.3)	(11.7)	(12.4)	(12.1)	(11.5)	(12.2)	(11.8)
50-54세	61,967	73,878	135,845	55,553	68,736	124,289	44,529	56,949	10,147
55-59세	79,469	92,445	171,914	73,731	87,948	161,679	62,001	74,855	136,856
50대	(16.2)	(18.4)	(17.3)	(16.7)	(19.2)	(18.0)	(17.2)	(20.2)	(18.7)
60-64세	76,721	87,591	164,312	73,267	85,127	158,394	61,055	68,635	129,690
65-69세	50,875	59,038	109,913	50,373	58,189	108,562	42,320	47,551	89,871
60대	(14.6)	(16.2)	(15.4)	(16.0)	(17.6)	(16.8)	(16.7)	(17.8)	(17.3)
70-74세	35,960	38,858	74,818	36,911	38,685	75,596	31,173	31,600	62,773
75-79세	19,083	23,883	42,966	19,635	23,057	42,692	17,228	19,205	36,433
80세이상	11,455	27,640	39,095	11,730	27,174	38,904	10,523	22,602	33,125
70대이상	(7.6)	(10.0)	(8.8)	(8.8)	(10.9)	(9.9)	(9.5)	(11.2)	(10.4)
합 계	872,718	903,251	1,775,969	774,809	814,558	1,589,367	619,605	652,833	1,272,438
H 7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1990)」에서 재계산.

표 2-23 연령별 농가인구 수의 연 평균 변화율, 1990~95년

단위: %

									<u> </u>
지대	;	평야지	대	. 4	중간지	대	۲ ا	산간지	대
연령	남	여	합계	남	व	합계	남	여	합계
5~9	-2.5	-2.0	-2.3	-1.6	-1.6	-1.6	-2.1	-1.9	-2.0
$10 \sim 14$	-4.8	-4.5	-4.6	-4.3	-4.0	-4.1	-5.3	-4.6	-4.9
15~19	-9.2	-9.3	-9.3	- 9.9	-9.8	-9.9	-12.1	-11.7	-11.9
$20 \sim 24$	-15.0	-16.5	-15.7	-14.9	-16.4	-15.6	-17.5	-19.7	-18.5
25~29	-11.1	-16.5	-13.3	-10.1	-14.8	-12.0	-11.9	-15.6	:-13.4
30~34	-12.9	-9.0	-11.2	-11.9	-8.0	-10.2	-11.7	-7.7	-9.9
$35 \sim 39$	-6.2	-4.5	-5.3	-5.5	-4.0	-4.7	-5.9	-4.3	-5.1
40~44	-3.6	-3.5	-3.5	-3.0	-2.6	-2.8	-3.3	-3.1	-3.2
45~49	-3.3	-2.8	-3.1	-2.6	-2.2	-2.4	-3.1	-2.6	-2.9
50~54	-3.4	-3.2	-3.3	-2.6	-2.3	-2.4	-3.0	-2.6	-2.8
55~59	~3.7	-3.4	-3.5	-2.9	-2.6	-2.7	-3.1	-2.6	-2.8
$60 \sim 64$	-3.3	-3.7	-3.5	-2.3	-2.6	-2.5	-2.4	-2.9	-2.7
65~69	-5.6	-6.2	-6.0	-4.8	-5.2	-5.0	-4.8	-5.4	-5.1
70~74	-7.9	-8.0	-8.0	-6.6	-7.0	-6.8	-6.6	-7.1	-6.9
75~79	-11.7	-9.7	-10.6	-10.4	-8.8	-9.5	-10.3	-8.9	-9.5
80세 이상	-9.3	0.4	-3.0	-8.4	1.3	-2.1	-8.1	1.5	-2.1
합 계	-6.7	-6.6	-6.7	-6.1	-5.9	-6.0	-6.8	-6.4	-6.6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급격하게 이농하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여자의 유출속도가 남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혼 적령기의 여자의 경우 결혼과 함께 이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4.3. 도시근교지역과 산간지역의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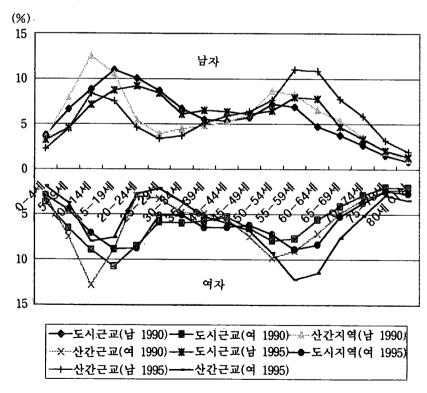
도시근교와 산간지역을(각각 4개 군) 유의적으로 선택하여 농가인 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청장년 층 비중이 산간지역 의 그것보다 훨씬 높고 산간지역은 도시근교보다 노령화 비율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sup>11</sup> 성별 평균 이농율은 지대에 관계 없이 여자의 감소율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시근교지역의 경우 1995년도 남자 농가인구 중 30대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장년층 비중이 1990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여자의경우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인구비중이 증가하였다. 20~30대 농가인구비중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남녀 공히 감소하였으나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간지대의 경우 5년 사이에 20~30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향후 지역의 유지에 어려

그림 2-8 도시근교(화성, 평택, 용인, 광주) 및 산간지대(무주, 진안, 영양, 봉화)의 농가인구의 연령별 변화



<sup>12</sup> 도시근교지역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화성, 평택, 용인, 광주군을, 산간지역은 무주. 진안, 영양, 봉화를 유의적으로 선택하였다.

움이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농가인구는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과거 추세보다 더욱 노령화 되었으나 노령화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근교지역 및 평야지대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농가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3 농업생산부문 요소 투입량과 생산성

이 절에서는 농가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하에서 농업생산부문의 요소투입량과 이에 대응하여 농업노동생산성과 생산요소가격이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한다.

#### 3.1. 생산요소 투입 비중의 변화

1980년 이후 농업부문의 자본 투하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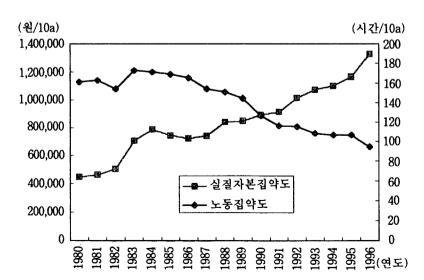


그림 2-9 자본 및 노동집약도 추세

투하량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림업 취업자와 노동집약도<sup>13</sup>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본집약도<sup>14</sup>는 증가하고 있다.

자본집약도는 1992년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실시되면서 농업부문에 자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도의 감소는 1988년 이후부터 비농업부문의 노동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실질노임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동투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노동투입의 감소는 농업노임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만호 주택건설」로 대변되는 단순 노동력수요의 증가 및 올림픽 특수로 인한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수요증가는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노동력의이동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농업부문은 노동력 부족과 실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한다.

농업부문의 실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농업경영비의 압박을 가져왔고 이는 농가로 하여금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토록 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비에서 자본이 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임고용 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자재 및 동식물비 비중은 1980년 52.5%에서 1985년 58.9%, 1990년 56.9%, 1995년 64.8%로 꾸준하게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비에서 임고용 지출비중은 1980년 18.2%에서 1985년 11.6%, 1990년 10.0%, 1995년 8.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3.2. 농업생산부문 요소생산성

농가인구 및 농업인력의 유출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자본투자 및 영농규모화로 대체되었다. 노동의 자본으로의 대체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났고 이는 실질농업노임의 증대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농업노동생산성과 농업노임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sup>&</sup>lt;sup>13</sup> 노동집약도 = 영농시간/경지면적(10a).

<sup>14</sup> 자본집약도 = 농업자본액/경지면적(10a).

표 2-24 농업노임 추세(1일 평균)

단위: 원

구분		남 자			여 자		평균
연도	합계(A)	현금	음식물	합계(B)	현금	음식물	(A+B)/2
1980	6,509	4,746	1,763	4,841	3,312	1,529	10,412.8
1985	9,695	7,082	2,613	6,940	4,780	2,160	10,830.1
1990	18,563	14,661	3,902	13,224	10,181	3,042	15,893.5
1995	33,237	27,733	5,504	23,791	19,603	4,188	21,105.8

주: 1990년 불변가격.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10a당 노동과 자본의 투하 비율<sup>15</sup>은 1980년 2,770.5원에서 1985년 4,397원, 1990년 7,043.6원, 1995년 10,931원, 1996년 14,022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0a당 자본집약도는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980년 446천원에서 1995년 1,166천원으로 연평균 약 10.8%씩증가하였다. 한편 농가인구의 유출로 인한 농업노동력 투입의 감소는 10a당 농가의 연평균 노동집약도를 1980년 161시간에서 1995년 106.6시간으로 연평균 2.3%씩 감소시켰다.

자본 투입량의 증가와 노동집약도의 감소는 노동생산성(=농업부가 가치/영농시간)을 증대 시켰고 시간당 노동 평균생산성은 1980년 2,337원에서 1995년 6,948원으로 연평균 약 13.2%씩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1일 평균농업노임은 1980년 10,413원에서 1995년 21,106원으로 연평균 약 6.8%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0~95년의 15년 동안 노동생산성과 농업노임의 연평균 성장률은 농림어업부문 산출물의 연평균 성장률(3.2%), 농림부문(3.0%), 농업부문(3.7%)보다 높은 성장률을보이고 있다(표 2-25, 그림 2-10 참조).

1990년대 들어와서 자본집약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자본의 한 계생산성이<sup>16</sup> 감소한 반면 1일 노동평균생산성과 (실질)농업노임이

<sup>15 10</sup>a당 자본집약도/10a당 노동집약도.

<sup>&</sup>lt;sup>16</sup> 농업부문의 생산함수가 일차동차함수라고 가정하면 노동 한 단위당 생산액

연도 항목	1980	1985	1990	1995
1일 농업노동임금 <sup>1), 2)</sup>	10,413	10,830	15,894	21,106
1일 노동평균생산성 <sup>1), 2), 3)</sup> (시간당 노동평균 생산성)	18,701 (2,337)	24,146 (3,018)	39,465 (4,932)	55,586 (6,948)
노동집약도(영농시간/10a)	161.0	168.8	126.7	106.6
자본의 평균 생산성 <sup>1), 2)</sup>	0.84	0.69	0.70	0.61
자본의 한계생산성	0.37	0.38	0.42	0.39
자본집약도 (농업자본액/10a) <sup>1), 2)</sup>	446,134	742,395	892,355	1,165,684

표 2-25 농업부문 요소의 생산성 및 집약도 지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1992년부터 농업부문의 대규모 「구조개선사업」과 함께 자본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 졌으나 노동력의 심각한 유출 및 영농시간 감소로 자본과 노동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농업생산부문에 투하되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고령화 및 부녀화)는 자본투하의 효율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농가 경영주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농가의 인적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frac{Q}{L} = MP_K \frac{K}{L} + MP_L$$

$$MP_K = \frac{L}{K} (\frac{Q}{L} - MP_L)$$

여기서 Q=농업생산부가가치, K=자본량, L=노동량, MPK=자본의 한계생산성, MPL=노동의 한계생산성이다. 농업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 구조라고 가정하면 MPL="실질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위의 관계식에서 농업부문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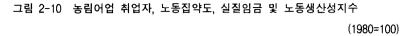
<sup>1) 1990</sup>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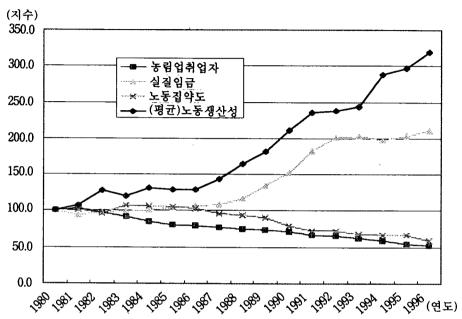
<sup>2)</sup> 단위: 원.

<sup>3)</sup> 시간당 노동평균 생산성을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과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sup>&</sup>lt;sup>17</sup> 기술수준이 발전하였다고 가정하면 자본 생산성 감소는 더욱 크다.





# 4. 농가 및 경영주의 구조 분석

농기계 보급과 더불어 농업노동력 수요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아가 농업노동력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농가경영주의 영농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 경영주가 노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후계자 확보율 또한 감소 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본과 연계된다. 본 절에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본과 연계된다. 본 절에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본과 연계된다.

<sup>&</sup>lt;sup>18</sup>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해서는 Romer(1986), Lucas(1988), Barro and Sala-i-Matin (1995)를 참조.

#### 4.1.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농가 경영주의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연령층이 1970년의 30대 후반에서 1995년 60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고령화 되었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의 최빈값은 1970년에 35~39세에서 1980년 45~49세, 1990년 50~54세, 1995년에 60~64세로 변함으로써 10년 터울로 경영주의 연령분포 최빈값이 10년씩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최빈값은 5년 사이에 10년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가경영주의 고령화가 좋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농가인구가 젊은 총을 중심으로 이농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1995년도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최빈값 은 50대 후반인데 비하여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의 최빈값이 60대 초 반이라는 것은 농가인구가 그 만큼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경영주 고령화 현상은 논벼 생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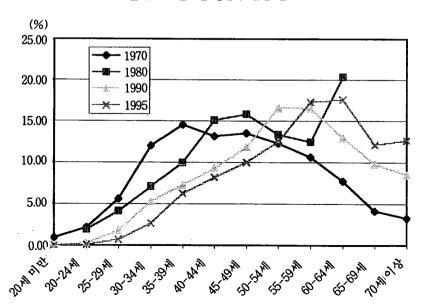


그림 2-11 연도별 경영주 연령 분포

표 2-26 연도별 경영주 연령 분포

단위: 가구, (%)

연도 연령	1970	1980	1990	1995
20세 미만	2,3441 (0.9)		451 (0.0)	94 (0.0)
$20 \sim 24$	53,741 (2.2)	41,485 (1.9)	5,520 (0.3)	1797 (0.1)
$25 \sim 29$	138,630 (5.6)	88,188 (4.1)	30,748 (1.7)	10,420 (0.7)
$30 \sim 34$	297,352 (12.0)	152,469 (7.1)	92,917 (5.3)	40,130 (2.7)
35~39 <sub></sub>	360,570 (14.5)	214,654 (10.0)	28,260 (7.3)	94,071 (6.3)
$40 \sim 44$	327,083 (13.2)	324,791 (15.1)	163,776 (9.3)	122,363 (8.2)
45~49	335,870 (13.1)	340,003 (15.8)	208,732 (11.8)	150,131 (10.0)
$50 \sim 54$	305,978 (12.3)	287,619 (13.3)	292,451 (16.6)	187,881 (12.5)
55~59	263,586 (10.6)	268,288 (12.4)	291,513 (16.5)	259,375 (17.3)
$60 \sim 64$	192,525 (7.8)	437,576 (20.3)	229,483 (13.0)	262,997 (17.5)
65~69	103,227 (4.2)	-	173,150 (9.8)	181,566 (12.1)
70세 이상	81,315 (3.3)	-	150,032 (8.5)	189,920 (12.7)
합 계	2,483,318(100.0)	2,155,073(100.0)	1,767,033(100.0)	1,500,745(100.0)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표 2-27 연도별 논벼 경영주 연령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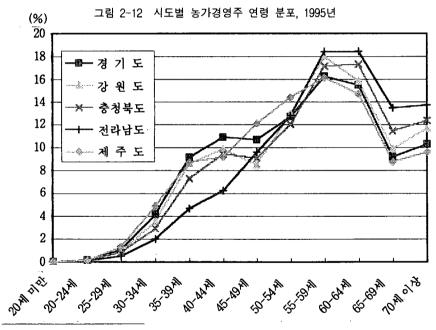
			,
연도 연령	1970	1990	1995
20세 미만	10,291 (0.9)	311 (0.0)	55 (0.0)
$20 \sim 24$	24,850 (2.2)	3,757 (0.3)	988 (0.1)
$25 \sim 29$	61,822 (5.5)	19,170 (1.6)	4,726 (0.6)
$30 \sim 34$	128,746 (11.6)	56,011 (4.5)	17,107 (2.1)
35~39	155,448 (13.9)	78,612 (6.4)	40,843 (5.0)
40~44	143,545 (12.9)	106,321 (8.6)	54,655 (6.6)
45~49	150,266 (13.5)	142,445 (11.6)	73,170 (8.9)
50~54	141,673 (12.7)	209,176 (17.0)	99,824 (12.1)
55~59	122,894 (11.0)	213,421 (17.3)	148,667 (18.1)
60~64	90,037 (8.1)	169,392 (13.8)	157,942 (19.2)
65~69	48,382 (4.3)	126,466 (10.3)	111,171 (13.5)
70세 이상	36,719 (3.3)	106,757 (8.7)	114,310 (13.9)
합 계	1,114,673(100.0)	1,231,839(100.0)	823,458(100.0)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

있다<sup>19</sup>(1970년: 35~39세, 1990년: 55~59세, 1995년: 60~64세). 한편 논벼생산 위주의 경영주 연령분포의 최빈값은 1990년까지 전체 농가경영주의 연령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다가 1995년도에 접어들어 전체농가의경영주연령의 최빈값과 동일하다는 것은 논벼 생산농가는 잔존하고 그이외의 영농형태 농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4.2.** 시·도벌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sup>∞</sup>

1990년대 접어들어 상업영농이 정착됨으로써 수도권 인근지역인



<sup>19</sup> 환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경영주의 연령이 그렇지 못한 작물(수 도작 중심)을 재배하는 경영주의 연령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농형태별 농가경영주 연령분포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분석된다.

<sup>20</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영농형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에 따라 농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농가경영의 속성(연령분포) 또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1980~1995년 동안 시·도별 농가경영주 연 령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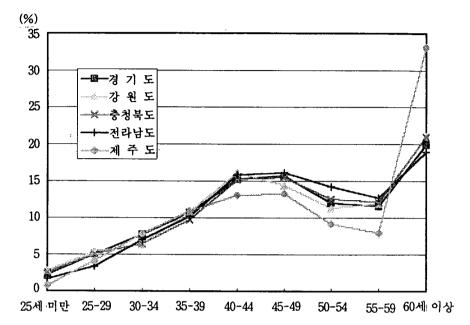


그림 2-13 시도별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1980년

경기도와 특수작물이 재배되는 강원도 및 제주도의 경우 45세 미만의 젊은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고, 전통적인 농도라 할 수 있는 미작중심의 전라남도의 경우 45세 미만의 농가경영주가 가장 적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농이 정착되기 전인 1980년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농가경영주 연령분포는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업농 체제가 구축된 1995년도의 경우 지역별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는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의 경우 경영주의 고령화(55세이상 경영주)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40대초반 이하의 경영주가 가장 적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는 미작 위주 영농의 상대적 위축과 지역의 농외소득원의 미발달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이농하였기 때문이다.

#### 4.3. 농업지대별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1995년도 농가경영주의 연령은 지대에 관계 없이  $60\sim64$ 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90년의  $50\sim54$ 세가 경영주 연령의 최빈값이라는 사실에서 지난 5년 사이 경영주가 급격하게 고령화 되었고 농업지역(대)에서는 평야, 중간, 산간 등 지대에 따른 경영주의 연령분포가 차이 없이 전반적 고령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가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의 감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농촌지역의 교육 문제).

그러나 지대별로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젊은 농가경영주의 분포는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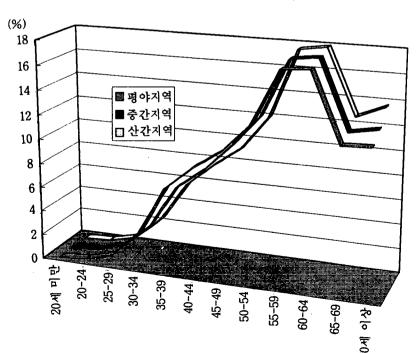


그림 2-14 지대별 농가경영주의 연령 분포,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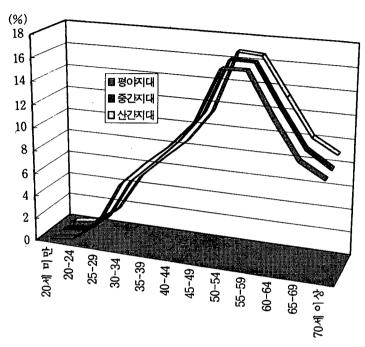


그림 2-15 지대별 농가경영주 연령 분포, 1990년

타났다. 상대적으로 생활여건과 사회간접자본이 양호한 평야지대에 젊은 농가경영주가 그렇지 못한 중·산간지대보다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도는 44세 이하의, 1995년도는 49세 이하의 농가경영주가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990~95년 5년 동안 지대에 따른 젊은 농가경영주의 구성분포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0년의 경우 40대 이하의 젊은 농가경영주의 분포가 지대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1995년 도에는 지대에 따른 40대 이하의 젊은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5년 동안 30~40대 농가경영주 연령분포가 평야지대와 중·산간지대에 차이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젊은 농가경영주가 중·산간지대보다 평야지대에 더 많이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농가경영주의 지대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4.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및 학력 분포

영농형태별로 농가경영주의 연령과 학력분포가 상이하다. 화훼, 채소, 특용작물과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경영주의 연령은 다른 경종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연령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화훼의 경우경영주 연령의 최대분포구간은  $40\sim44$ 세로 타 작물 경영주의 연령보다 훨씬 낮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주 학력 또한 고학력으로 나타났다.

40대이하 경영주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평균이 27.9%에 불과 한데비하여 채소의 경우 31.6%, 과수 32.1%, 축산42.4%, 화훼 58.4%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젊은 농가경영주의 학력 또한 일반 농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이상 학력의 경영주 비율은 전체평균이 약 16.1%이나 채소농가의 경우 16.2%, 과수농가 24.7%, 축산농가 23.6%, 화훼 53.2%로서 소득탄성치가 높은 환금작물(Cash Crops)과 상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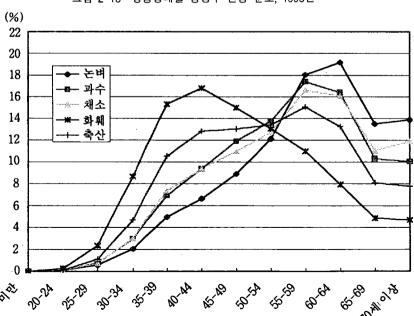


그림 2-1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분포, 1995년

표 2-28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및 학력 현황, 1995년

단위: 천호. (%)

	합계	논 벼	채 소	과 수	축 산	화 훼	전 작 등
총 농가수	1,501	823	247	144	156	10	121
40대이하	419	192	78	46	66	6	25
경영주	(27.9)	(23.3)	(31.6)	(32.1)	(42.4)	(58.4)	(20.6)
고졸이상	242	109	40	35	37	5	16
경영주	(16.1)	(13.2)	(16.2)	(24.7)	(23.6)	(53.2)	(13.3)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이 높은(판매금액 기준) 작물일수록 경영주의 연령이 젊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가경영주의 연령과 학력을 농가경영주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한 수단이라고 가정하면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금작물과 자본집 약적 영농형태의 경우 유능한 젊은 인적자본이 유인·유입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하여 전업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화훼, 축산, 시설채소 등 자본 집약적인 농업에 양질의 인적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기본조건(가격 및 소비구조 등의 시장구조)이 구축되어 있고 젊은 유효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5. 경영주 연령별 농지규모

고령 경영주의 경우 농지규모 확대하지 않고 젊은 경영주 일수록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ha이상을 경영하는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는 30~40대가 47.0%인 반면 60대 이상의 경영주는 18.9%에 불과하다. 5ha이상 농가 경영주는 30~40대가 53.4%, 60대 이상이 16.3%, 10ha이상을 경영하는 농가경영주 연령분포는 30~40대가 57.9%, 60대 이상이 14.5%로서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표 2-29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1995년

단위: 천호, (%)

연령 규모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ha 미만	8	74	141	234	430
	(0.9)	(8.4)	(15.9)	(26.4)	(48.4)
1 ~ 3	4	48	109	189	191
	(0.6)	(8.9)	(20.2)	(35.0)	(35.2)
3 ~ 5	0.5	8	16	19	11
	(0.8)	(15.2)	(30.0)	(34.3)	(19.7)
5ha 이상	0.1	3	5	4	2
	(1.0)	(19.7)	(33.2)	(29.6)	(16.5)
10ha 이상	0.0	0.4	0.6	0.5	0.2
	(1.0)	(24.1)	(33.8)	(26.6)	(14.5)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그러나 농가 경영주가 고령화 되어감으로써 노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젊은 경영농가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는가 라는 농지유동화의 문제는 향후 젊은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실현가능 성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신규 인적자본의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4.6. 농업종사자 수

농가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비중이 1990년 대비 1995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종사자<sup>21</sup> 비중(=농업종사자/농가가구원)은 1990년 80.4%에서 1995년 79.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농업주종사자 비중<sup>22</sup>(=농업주종사자/농가가구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4%(1990년)→61.3%(1995년)}.

<sup>&</sup>lt;sup>21</sup> 농업종사자=농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농업종사기간이 있는 가구원 (참고;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sup>&</sup>lt;sup>22</sup> 농업종사인구 중에서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농업에만 종사하였거나 또는 농업이외의 일에 종사하였어도 농업종사기간(또는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또는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인구(참고,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표 2-30 지대별 농업종사자 인구 수

단위: %

연도	지대	15세 이상 . 농가인구	농업종사인구	그 중 주종사
	평야지대	100.0	79.2	56.8
1990년	중간지대	100.0	80.5	58.6
	산간지대	100.0	82.0	60.5
합	계	100.0	80.4	58.4
	평야지대	100.0	79.4	60.6
1995년	중간지대	100.0	78.1	60.9
	산간지대	100.0	80.8	62.8
합	계	100.0	79.3	61.3

지대별로는 산간지대의 농업종사자와 주종사자 인구비중이 중간 및 평야지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간지대의 농업종사자 비중이 타 지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간지대 의 이농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농업종사자 비중은 감소한데 농업주종사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농가구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비농업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구원이 주로 이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업종사자 비중은 감소하나 주종사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농업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던 젊은 농가구원이 이농하였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간지대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산간지대일수록 농업주종사의 비중이 높게나타나고 있다.

# 4.7. 농가의 영농 승계자

농가의 지속성 및 농업인적자본의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가의 영농승계자 확보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농승계자 확보율은 농가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영농의 전문성 즉, 영농인적자본을 측정할수 있는 한 수단이 된다.

영농승계자 확보비율은 1990년 16.4%에서 1995년 13.0%로 감소하

고 있는데 특히 젊은 영농승계자의 확보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1 참조).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구 중에서 동거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비중(동거 영농승계자 확보비율)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9%(1990년)→69.0%(1995년)}.

농업지대별로는 평야지대가 중간지대, 중간지대가 산간지대보다 영 농승계자 확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야지대: 18.0%, 중간지 대: 15.3%, 산간지대: 15.4%). 지대별로 영농승계자 확보비율이 상이 한 것은 농업소득이 지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농외 소득원 및 사회간접자본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 어 산간지대의 경우 농외소득원과 생활편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영농 및 농촌거주의 이점이 타 농업지 대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영농승계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동거 영농승계자 확보비율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특히 동거 영농승계자의 경우 평야지대가 전국 평균치보다 약 3.6%정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평야지대가 영농조건 뿐만 아니라 인 근 지역으로의 근접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농가에 거주하더라도 농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농승계자의 연령분포 또한 지대별로 상이한데 산간지대일수록 영농승계자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간지대 일수록 영농승계자의 연령이 높고 평야지대는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자 중에서 1990년도 30~35세 사이의 영농승계자 비율이 평야지대는 20.6%, 중간지대와 산간지대는 23.0%로, 1995년도는 40세이상의 영농승계자 비율이 평야지대 10.4%, 중간지대 13.2%, 산간지대 1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거 영농승계자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간지대일수록 농외소득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활편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미흡하기 때문에 젊은 영농승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평야지대의 경우 소득원 및 거주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영농승계자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

표 2-31 지대별 영농 승계자 연령 분포

단위: %

	u =				•	Q	g 농 경	·계자	연령	분포			
`	분류	농		į.						동기	승기	ᅨ자	
지	대	가 수	A	소 계 (B)	I	п	Ш	IV	소 계 (C)	I	П	'Ш	īV
1	평야지대	100.0	82.0	18.0	24.0	28.3	27.1	20.6	78.5	28.7	29.3	25.7	16.2
9	중간지대	100.0	84.7	15.3	22.8	27.2	27.0	23.0	72.5	28.8	28.4	25.3	17.5
9 9 0	산간지대	100.0	84.6	15.4	22.9	27.8	26.2	23.0	72.1	29.2	29.2	24.1	17.5
년	소 계	100.0	83.6	16.4	23.3	27.8	26.9	22.0	74.9	28.9	29.0	25.1	17.0
1	평야지대	100.0	85.5	14.5	14.4	45.4	29.8	10.4	72.2	18.7	49.1	24.6	7.7
9	중간지대	100.0	87.5	12.5	11.6	42.8	32.5	13.2	66.9	15.7	47.0	26.7	10.6
9 9 5	산간지대	100.0	88.5	11.5	12.3	40.9	32.6	14.3	66.7	16.9	45.1	27.1	10.9
년	소 계	100.0	87.0	13.0	12.9	43.4	31.4	12.3	69.0	17.3	47.4	25.9	9.4

주: A: 영농승계자 없는 농가, B: 영농승계자 있는 농가, C: 영농승계자 있는 농가 중 동거 승계자

I: 15~19세, II: 20~24세(1990년), 20~29세(1995년), III: 25~29세(1990), 30~39세(1995), IV:30~35세(1990), 40세 이상(1995).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 연도에서 재계산,

#### 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농가의 영속성 및 영농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확보(장래 농업의 희망적 전망)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생활편린시설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22</sup> 따라서 농업인력의 개발방향은 지역의 종합개발과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sup>lt;sup>23</sup>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4절에서 상세하게 분석된다.

# 제 3 장

#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전망과 신규 귀농가 분석: 농업인력 공급

이 장에서는 2005년도까지 농가인구 전망을 기초로 농업노동력을 전망하여 향후 농업생산부문의 기간공급인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인가를 전망한다. 기간인력은 농가구원으로서 농업생산부문 취업자와 달리 생산과정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간인력의 공급가능성 전망은 향후 우리나라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본 장은 크게 4절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절에서 농업노동력 전망을 위한 「기본 모형(Cohort 방법)」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절은 「농가인구의 전망」, 세 번째 절은 농업생산의 기간인력인 「농업주종사자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인력 공급원인 「귀농가구 분석」이 이루어 진다.

# 1. 농업노동력 전망모형: Cohort 방법

농업 노동력의 전망을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인구균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을 도입한다.

$$(3-1) P_t - P_0 = B_{0-t} - D_{0-t} + I_{0-t} - E_{0-t}$$

여기서, Pt: t기의 인구 수

Po: 0기의 인구수

B<sub>0-t</sub>: (0, t) 기간의 출산자

D<sub>0-t</sub>: (0, t) 기간의 사망자

I<sub>0-t</sub>: (0, t) 기간의 인구유입자

E<sub>0-t</sub>: (0, t) 기간의 인구유출자

농가인구의 증감률이 시간에 걸쳐 동일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t 년도의 인구수는 기준연도의 인구와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3-2) 
$$P_t = p_0 e^{rt}$$

이를 (수식 3-1)에 대입하면.

(3-3) 
$$P_0(e^{rt}-1) = B_{0-t}-D_{0-t}+M_{0-t}$$

와 같이 된다. 한편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⁴

(3-4) 
$$\frac{M_{0-t}}{P_0} = e^{rt} - \frac{B_{0-t}}{P_0} + \frac{D_{0-t}}{P_0} - 1$$

여기서  $M_{0-t}(=I_{0-t}-E_{0-t})$ 는 (0-t)기간 동안의 순이농자 수를 나타낸다. 그런데 농가인구의 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을 구할 수없기 때문에 농가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출생률 및사망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sup>&</sup>lt;sup>24</sup> 농가인구수의 전망(Projection)을 위하여 농가의 이농률이 중요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간접적으로 농가인구수 변화율에서 자연증감률을 제한 것을 이농률로 대신하였다.

(3-5) 
$$\frac{B_{0-t}}{P_0} \approx \frac{B_{0-t}^T}{P_0^T}, \qquad \frac{D_{0-t}}{P_0} \approx \frac{D_{0-t}^T}{P_0^T}$$

여기서  $P_0^T$ : 0년도의 전체 인구수,  $B_{0-t}^T$ ,  $D_{0-t}^T$ : 각각 (0-t)기간 동안의 전체 인구 중에서 출산 수 및 사망자 수이다.

한편 연령별 농가인구수를 전망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형에서 연령계급을 5개년 씩 구분한다. 즉, J=5로 하고 연령구간은 0세부터 80세이상까지를 17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령계급을 고려한 농가인구는 다음과 같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수식 3-1, 수식 3-2을 연령별로 구분함).

(3-6) 
$$P_0 = (P_1^0, P_2^0, \cdots, P_i^0, \cdots, P_{17}^0)^T$$

농가인구의 연령별 이농률  $(\frac{M_0'-t}{P_0'})$ 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농가인구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령별 출산율(ASFR: Age Specific Fertility Rate)과 연령별 생잔률(Survival Rate)을 이용하여 1990년도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1995년도의 이농이 없는 농가인구를 연령별로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1995년도의 농가인구와 1995년도 농가인구 실제치와의 차이를 1990~95년 동안의 연령별 농가인구의이농자로 정의할 수 있다. 1990~95년 사이의 농가인구의이농률은 기간 동안 연령별 이농자를 1990년도 해당 연령별 농가인구수로나눔으로써 연령별로 구할 수 있다. 즉, (0-t) 기간 동안 농가인구의순이농 규모는 이기간 동안 이농이 전혀없고 다만 자연증감만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t기의 농가인구를 예측한 뒤이를 t기의 실제 농가인구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순이농률은 t기동안 이를 t이의 농가인구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농이 없는 연령별 농가인구는 1995년도의 연령별 농가인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P_1 = (B_0 + S_0)P_0$$

여기서  $B_0$ 는 199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대비 가임연령인구 비(=신생아 수/1990년도 가임 연령인구수)를 나타내는 행렬로서 다음과 같다.

$$b_k = rac{k \ ext{가임그룹에서 태어난 신생이 수}}{P_k^0}, \quad k=3, ..., \ 11$$
  $B_0 = egin{pmatrix} 0 \ 0 \ b_3 \ \dots b_{11} \ 00 \dots 0 \ \dots & \dots & \dots \ 0 \ \dots & \dots & \dots \ 0 \end{pmatrix}$ 

So는 연령별 생잔율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다음과 같다.

$$S_0 = \begin{pmatrix} 0 & \dots & \dots & 0 \\ s_{2,1} & 0 & \dots & \dots & 0 \\ 0 & s_{3,2} & 0 & \dots & \dots & 0 \\ 0 & 0 & s_{4,3} & 0 & \dots & \dots & 0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0 & 0 & \dots & \dots & s_{17,16} & s_{17,17} \end{pmatrix}$$

여기서 si,i-1=1-(그룹 i의 사망자 수)/Pi 로서 그룹 i의 생잔율을 나 타낸다.

이렇게 계산된 P<sub>1</sub>은 1990~95년 동안 이농이 없다고 가정한 1995년 도 연령별 농가인구가 된다. 이제 실제 1995년도 연령별 농가인구 (P<sub>95</sub>)에서 P<sub>1</sub>을 빼면 연령별·성별 농가인구의 이농규모를 구할 수 있다. 1990/95년의 5년 동안 전체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약 24.9%, 연평균약 5.0% 씩 이농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연평균 약 4.9%, 여자는 연평균 약 5.0% 씩 이농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1990~95년 사이 연령별·성별 이농률은 부록에 계산되어 있다)

연령별 농가 인구의 이농률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1995/2000, 2000/2005년의 생잔률과 연령별 출산율을 원용하여 각각 2000년과 2005년의 연령별 농가인구를 구할 수 있다. 2000년과 2005년도의 인구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P_2 = (B_1 + S_1)P_1 + M_1, P_3 = (B_2 + S_2)P_2 + M_2$$

여기서  $P_2$ ,  $P_3$ 는 각각 2000년도와 2005년도의 인구수를 나타내고,  $M_1$ ,  $M_2$ 는 각각 1995~2000, 2000~2005년 사이의 농가인구의 순이농 규모를 나타낸다.

# 2.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전망<sup>∞</sup>

먼저 IMF 외환위기가 농업·비농업간의 노동력 수급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 IMF 외환위기사태가 농업·비농업부문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지난 1990~95년간의 이농률을 이용하여 2000년과 2005년도의 농가인구를 전망한다. 그 다음 IMF 외환위기가 농업·비농업의 노동력 수요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 농가인구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순이농률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농가인구를 전망한다.

## 2.1. IMF 외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990~95년 사이의 농가인구의 연령별 이동률이 1995~2005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전망을 하면, 농가인

<sup>\*\*</sup> 농가인구 및 농업인력의 중·단기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위 기 이후의 농업과 비농업부문과의 성장률 격차 및 노동수요 등을 고려하여 야 하나 이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국민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농가인구의 이농률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하여 2000~2005년의 농가인구를 전망하기로 한다.

구는 1995년 4,851천명에서 2000년도에 약 3,700천명, 2005년 약 2,799 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연평균 변화율은 1990~95년 남자가 -6.4% 여자가 -6.2%에서 1995~2000년은 남자가 -4.7% 여자 -4.8%로, 2000~2005년은 남자 -4.8% 여자 -4.9%로 인구감소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이농률이 가장 높은 20~30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로 이농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다만 노령화 되어 있는 인구의 자연감소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과 2005년의 농가인구는 각각 60대 초반과 6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은 남자가 1995년 24.0%에서 2000년 31.7%, 2005년 37.0%로 증가하고 여자는 1995년 27.6%에서 2000년 36.1%, 2005년 42.4%로 2005년도에는 농가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로 구성될 전망이다.

반면 20~30대의 젊은 농가인구는 1995년 남자가 23.9%에서 2000년 22.5%, 2005년 20.7%로 감소하고 여자는 1995년 19.1%에서 2000년 17.8%, 2005년도에는 16.3%로 감소할 전망이다. 10대의 농가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연령계층의 부모세대인 30~40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된다.

특히, 60대 후반 이상 연령의 절대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향후 농가인구의 고령화 나아가 농업생산부문의 기간 인적자본의 급격한 열위가 초래되리라 예상된다. 연령별·성별 농가인구의 추세와 전망치는 (그림 3-1, 그림 3-2, 표 3-1)과 같다.

그림 3-1 농가인구 추세 및 전망치, 198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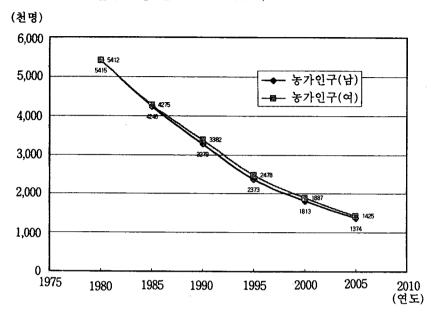


그림 3-2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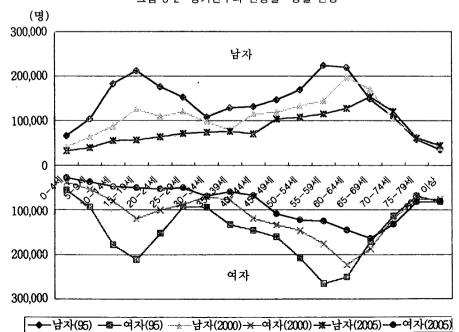


표 3-1 농가인구의 전망

단위: 명. (%)

연 령	1995년도 농가인구			2000년 농가인구(전망)			2005년 농가인구(전망)		
	남자	여자	합계	.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0-4세	65,799	55,764	121,563	40,886	38,125	79,011	31,569	28,176	59,745
5-9세	103,904	93,689	197,593	63,650	54,474	118,124	39,581	37,326	76,907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87,475	80,276	167,751	54,989	47,829	102,818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26,080	120,235	246,315	56,847	50,390	107,237
10대이하	. (23.8)	(21.7)	(22.7)	(17.5)	(15.5)	(16.5)	(13.3)	(11.5)	(12.4)
20-24세	175,850	152,676	328,526	109,953	100,607	210,560	64,066	53,145	117,211
25-29세	152,838	92,883	245,721	120,089	87,563	207,652	71,025	50,751	121,776
20대	(13.9)	(9.9)	(11.8)	(12.7)	(10.0)	(11.3)	(9.8)	(7.3)	(8.5)
30-34세	108,391	94,850	203,241	97,523	70,752	168,275	74,102	68,907	143,009
35-39세	128,694	132,793	261,487	80,208	77,226	157,434	76,379	59,298	135,677
30대	(10.0)	(9.2)	(9.6)	(9.8)	(7.8)	(8.8)	(10.9)	(9.0)	(10.0)
40-44세	132,327	146,458	278,785	114,935	119,322	234,257	70,181	67,876	138,057
45-49세	146,863	161,242	308,105	118,675	133,592	252,267	103,661	108,888	212,549
40대	(11.8)	(12.4)	(12.1)	(12.9)	(13.4)	(13.1)	(12.6)	(12.4)	(12.5)
50-54세	169,611	208,043	377,654	133,256	146,751	280,007	108,136	122,687	230,823
55-59세	224,137	265,211	489,348	144,715	176,238	320,953	115,553	125,350	240,903
_50대_	(16.6)	(19.1)	(17.9)	(15.3)	(17.1)	(16.2)	(16.3)	(17.4)	(16.9)
60-64세	219,470	250,718	470,188	197,428	222,959	420,387	127,341	145,211	272,552
65-69세	149,170	171,122	320,292	170,857	187,561	358,418	153,229	163,850	317,079
70-74세	108,115	113,587	221,702	103,492	118,675	222,167	121,519	132,444	253,963
75-79세	. 58,131	68,825	126,956	63,898	77,743	141,641	61,483	81,828	143,311
80세이상	35,032	80,719	115,751	39,610	75,158	114,768	44,760	81,079	125,839
60대이상	(24.0)	(27.6)	(25.9)	(31.7)	(36.1)	(34.0)	(37.0)	(42.4)	(39.7)
합 계	2,372,999	2,478,081	4,851,080	1,812,730	1,887,257	3,699,987	1,374,421	1,425,035	2,799,456

이와 함께 지대별 농가인구의 전망을 하면 1995년도 평야지대의 농가인구수가 1,776천명에서 2000년도 1,337.8천명, 2005년도에 1006.3천명으로 1995년 대비 연평균 약 4.3%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반면 산간지대는 1995년 1,272.4천명에서 2000년도 965.7천명,

<sup>&</sup>lt;sup>26</sup> 지대별 농가인구 전망은 전국 136개 시·군을 지대별로 분류한 뒤 1990년 대비 1995년 지대별 농가인구의 증감률에서 지대별 순이농률을 계산하여 이 들 이농률이 2000~2005 사이에 지속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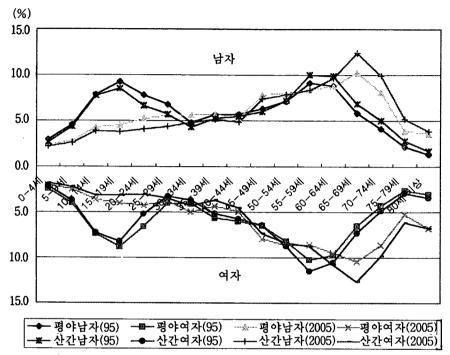


그림 3-3 지대별(평야지대, 산간지대) 농가인구(전망) 피라미드

2005년도 728.5천명으로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지대별로 인구의 감소율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대별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산간지대 일수록 고령인 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전망된다. 60세 이상인구 비중이 평야지대는 1990년 24.3%에서 2000년 31.7%, 2005년 37.5%로 증가하는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 1990년 27.7%, 2000년 37.0%, 2005년 43.6%로 노령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2.2. IMF 외환 위기를 고려한 농가인구 전망

IMF사태를 맞이하여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2.0%~2.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2).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으로써 농가인구의 순

이동률이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국민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 비농업부문의 노동수요 및 소득창출기화가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이농률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을 때 경제전반의 이농률이 높고 그렇지 않을 때 낮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앞에서 지난 25년간 (국민소득 계정에서)농업부문과 일반경제의 성장률 격차가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농을 유발하였다는 데에서 그 경험적 근거를 가진다.

여기서 분석의 단순함을 위하여 이농률이 국민경제의 성장률과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지난 1990~95년간의 연령별 이농률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7.1%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민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농가인구의 이농률 조정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이농률 조정계수를 α/7.1로 간주한다. α는 국민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1998~ 2000년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2% 수준에 머물 때 농가인구의 이농 률은 (5년간) 평균 약 7.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 스가 될 경우 농가인구의 이농은 없고 자연증감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연령별·성별 이농률을 구한 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연령별·성별 농가인구를 전망하는데 생잔율 및 연령별 출산율은 앞에서와 같이 전국 평균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추정방법은 앞에서와 같이 코호트 방식을 이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이농율 조정 후의 농가인구 전망치이다. 1995~2005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고, 1998~200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2%, 2000~2005년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7%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각 시나리오별로 농가인구의 전망치가 도시되어 있다(부록 참조).

<sup>7</sup>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를 가질 때 농가인구의 이동에 대한 경험자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기분석에 의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부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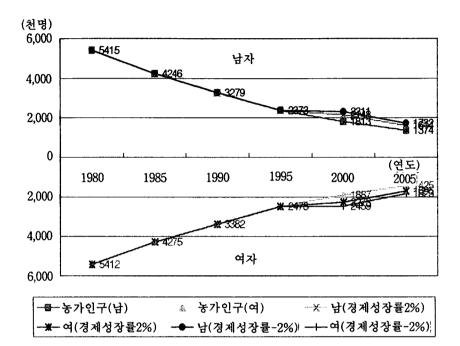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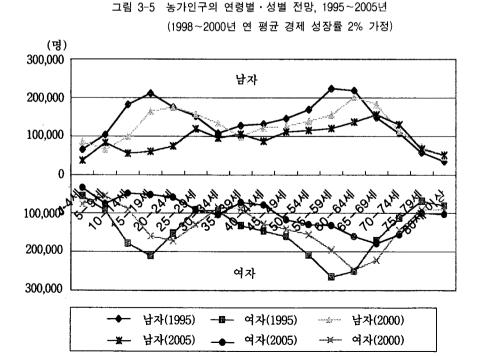


그림 3-4 농가인구 추세 및 전망치, 1980~2005년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00년도 남자 농가인구수는 약 2,148천명, 여자는 2,273천명으로 총 농가인구수는 약 4,421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남자 농가인구수는 약 2,311천명, 여자농가인구수는 약 2,459천명으로 총 농가인구수는 약 4,770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0~2005년 사이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IMF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2005년도의 농가인구수는 1998~2000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로 상이하게 전망된다. 요약하면 1998~2000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는 2005년도의 남자 농가인구수가 약 1.614천명, 여자농가인구수가 약 1.695천명으로 총

농가인구수는 약 3,30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8~2000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05년도의 남자농가인구수는 약 1,732천명, 여자 농가인구수는 1,823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수는 약 3,555천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상세한 전망치는 부록 참조).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때 1998~2000년 동안 농가인구는 연평균 약 1.8%로 감소하고, 2000~2005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동기간 동안 농가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약 5.0%가 된다. 마찬가지로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때 1998~2000년 동안 농가인구는 연평균 약 0.3%씩 감소하고 2000~2005년 사이는 연평균 약 5.1%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전망 피라미드는 (그림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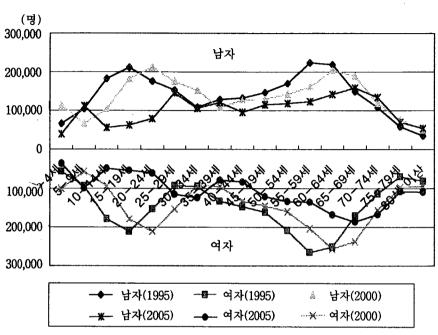


그림 3-6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 1995~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

경제성장률에 관계 없이 60대후반의 농가인구수는 그 절대 규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2000~2005년). 즉,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나아가 농가인구의 이농률 가정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정도에 따라 2000년도의 농가인구 중 20대와 30대 인구가 그 절대 규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8~2000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농가인구 절대수가 증가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때에는 20대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농가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20~30대의 젊은 농가인구층이 증가 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와 소득창출기회 가 축소되어 이농(또는 전업)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젊은 연령층의 이농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 20 대 초반의 농가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침체시 노동수요의 감소와 이로 인한 실업의 발생은 노동시장에 신규참여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먼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 3. 농업생산부문 종사자 전망

#### 3.1. 농업주종사자 전망: 1998~2000년도

앞에서 분석한 IMF시대에 경제성장률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별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에서 농업생산부문의 주종사자 수를 전망할 수 있다. 1995년도 성별·연령별 농가인구 분포에서 농업주종사자의 비중을 구한 뒤 이들 비중이 2000년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00년도의 연령별·성별 농업주종사자 수를 전망한다.<sup>∞</sup> 농업주종사자 연령별 분포전망은 앞의 연령별 농가인구수에서 농업주종사자 비율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표 3-2 연도별·성별 농업주종사자 인구 추정(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별)

단위: 천명

				1998			2000			연평균 증감률(%)			
1990 19	1995	1997	A	В	C	Α	В	C	1990	19	95-20	00	
				11	ן נ		A.	1		-95	A	В	С
남	1,589	1,210	1,169	1,151	1,170	1,198	1,122	1,144	1,193	-5.4	-1.5	-1.1	-0.28
_ 역	1,483	1,330	1,276	1,252	1,281	1,320	1,215	1,247	1,313	-2.2	-1.8	-1.3	-0.2
계	3,071	2,540	2,444	2,403	2,451	2,517	2,336	2,391	2,506	-3.8	-1.7	-1.2	-0.27

주: A: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가정시. B: 연평균 경제성장률 2% 가정, C: 연평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일 때(자연감소율을 가정).

<sup>28 2005</sup>년도의 농업생산부문 주종사자수를 전망하지 않은 것은 IMF 이후 농업생산부문의 구조조정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예상 때문에 단기 전망인 2000년도 까지만 농업주종사자 전망을 하였다.

표 3-3 경제성장률 대안에 따른 성별·연령별 농업주종사자 증감률(연 평균)

단위: %

연도	1990~95			1995~2000						
	11	여	합계	경제	성장률	2%	경제	성장률	-2%	
연령	령 남		땁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20대	-18.50	-16.52	-17.71	0.35	5.62	2.67	3.15	9.04	5.77	
30대	-11.38	-7.28	-9.23	-1.12	-5.40	-3.36	0.96	-4.09	-1.67	
40대	-8.03	-5.96	-6.93	-2.19	-2.59	-2.41	-1.65	-2.08	-1.88	
50대	-6.88	-3.43	-5.04	-5.77	-5.98	-5.89	-5.28	-5.32	-5.30	
60대 이상	1.77	5.87	3.70	1.58	2.77	2.18	2.16	3.92	3.05	
합 계	-5.45	-2.18	-3.80	-1.12	-1.30	-1.21	-0.28	-0.26	-0.27	

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일 때는 이동은 없고 자연감소(=사망-출생)만 있다고 가정함.

IMF 사태를 맞이하여 연평균 GNP성장률의 시나리오(연평균 성장률 -2%~3% 가정)에 따른 농업주종사자 인구 추정결과는 (표 3-2)와 같다. 1995년 농업주종사자 수는 남자 1,210천명, 여자 1,330천명으로총 2,540천명으로추계되는데 연평균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2,000년도의 농업주종사자 수는 남자가 약 1,122~1,193천명, 여자가 1,215~1,313천명으로 전체적으로약 2,336~2,506천명수준에 이를 것으로전망된다. 그 결과 1995~2000년동안의연평균 농업주종사의 감소율은 0.27~1.7%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써 1990~95년의연평균 농업주종사의 감소율 3.8%보다훨씬 작을 것으로추정된다.

연령·성별 농업주종사의 연평균 변화율은 전반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부문 취업률의 감소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감소함으로써 20대의 농업주종사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30대의 남자 농업주종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20대의 농업부문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비농업부문으로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농업부문으로 신규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표 3-3 참조).

#### 3.2. 수도작 농가의 기간인력 전망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수도작의 경우에 있어 기간인력의 공급가능성 전망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작부문의 1990~95년 사이의 연령별·성별 이농률을 고려하여 미작농가인구수를 전망한 뒤 연령별·성별 농업주종사자 비중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sup>29</sup> 1995~2000년 동안의 연령별·성별 이농률은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00~2005년 동안의 수도작 농가의 연령별 이농률은 이 기간 동안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 종전의 성장률을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1990~95년 동안의 이농률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망된 농업주종사자 수를 2000~2005년의 미작농업의 기간인력 공급가능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동 기간의 미작농가의 농업주종사자 전망은 (표 3-4)와 같다.

1995년도 전체 미작농가의 주종사자 수는 약 1,403천명으로 추계된다. 그 중에서 남자는 약 669천명(47.7%), 여자는 734천명(52.3%)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작농업 주종사자의 연령분포는 타 작물에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다. 1995년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약 42.3%를 점하고 있다.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2%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미작농가의 주종사수는 약 1,257천명(2000년), 882천명(2005년)으로 전망되어 1995~2000년간 연평균 약 2.1%, 2000~2005년 동안 연평균 약 6.0%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8~2000년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미작농가의 주종사자수는 약 1,370천명(2000년), 967천명(2005년)으로 전망되어 1995~2000년간 연평균 약 0.5%, 2000~2005년 동안은 연평균 약 5.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1995대비 2005년도의 미작농가의

<sup>&</sup>lt;sup>29</sup> 앞에서와 동일하게 수도작 농가의 연령별·성별 농업주종사자 비중은 전망 기간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농업주종사자는 10년 동안 연평균 약 3.1~3.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작농가의 주종사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 될수록 젊은 농업종사자수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30대의

표 3-4 미작농가 주종사자 연령별·성별 전망

단위: 명, (%)

<del></del>		1995년		2	000년(29	%)	20	005년(2%	6)
ত ও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1,202	20,434	51,636	30,886	29140	60,026	17,433	20,592	38,024
	(4.7)	(2.8)	(3.7)	(5.1)	(4.4)	(4.8)	(4.0)	(4.6)	(4.3)
30대	62,834	72,570	135,405	65,622	56,899	122,521	60,269	58,702	118,972
	(9.4)	(9.9)	(9.7)	(10.9)	(8.7)	(9.7)	(14.0)	(13.0)	(13.5)
40대	93,484	119,254	212,738	77,458	91,852	169,310	54,151	51,703	105,854
	(14.0)	(16.2)	(15.2)	(12.9)	(14.0)	(13.5)	(12.5)	(11.5)	(12.0)
50대	176,017	231,284	407,301	115,799	152,114	267,913	71,525	83,906	155,431
	(26.3)	(31.5)	(29.0)	(19.2)	(23.2)	(21.3)	(16.6)	(18.6)	(17.6)
60대 이상	303,676	289,706	593,382	311,022	324,880	635,902	228,061	235,484	463,545
	(45.4)	(39.5)	(42.3)	(51.7)	(49.6)	(50.6)	(52.8)	(52.3)	(52.6)
합 계	668,689	733,878	1,402,567	601,757	655,291	1,257,048	431,622	450,451	882,073
H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령				20	)00년(-2	%)	20	05년(-29	%)
<u> </u>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5,448	32,807	68,255	20,109	24,429	44,539
				(5.4)	(4.6)	(5.0)	(4.3)	(4.9)	(4.6)
30대				72,661	63,435	136,096	68,617	65,399	134,016
				(11.2)	(8,8)	(9.9)	(14.6)	(13.2)	(13.9)
40대				84,637	100,453	185,090	59,652	57,337	116,989
				(13.0)	(14.0)	(13.5)	(12.7)	(11.5)	(12.1)
50대				124,831	166,938	291,769	78,032	91,966	169,997
				(19.2)	(23.2)	(21.3)	(16.6)	(18.5)	(17.6)
60대 이상				332,169	355,189	687,357	243,325	257,678	501,003
				(51.0)	(49.4)	(50.2)	(51.8)	(51.9)	(51.8)
합 계				650,918	719,314	1,370,232	469,966	496,889	966,855
H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종사자의 절대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됨으로써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 축소 및 임금의 하락은 농업내부에서 농업부문의 신규취업자 증가(20대 종사자 증가)와 장년층의 이농억제(30대 종사자 증가)로 귀결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가 연평균 약 2% 성장할 경우 (1998~2000년 동안) 1995~2000년 동안 20대의 미작 농업종사율은 연평균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경제가 동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향후 2000년 까지 20대의 미작농업 주종사자가 연평균 약 5.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30대는 증가율은 미미하지만 1995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작농가의 주종사자 수를 성별로 전망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 20대 여자의 경우 2000년까지 연평균 9.5%씩 증가함으로써 동기간 동안 남자의 경우 연평균 2.6%씩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자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취업이 남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 여자의 이농이상대적으로 억제된 결과이다. 반면, 30대 경우 여자는 감소하는 대신남자는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약 2.9%).

국민경제의 성장률이 종전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20대의 미작농업 종사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0~2005년 동안 20 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9.1%(1998~2000년 동안 연평균 2%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8.5%(1998~2000년 동안 연평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도의 미작 농업종사인구수는 약 882~967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별로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60대 이상이 점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생산적 연령이라할 수 있는 미작농업 종사자수는 약 419~466천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4. 새로운 농업인력 공급위: 귀농가구

1990년대 후반부터 귀농가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귀농가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외부로부터 공급가능한 농업생산부문의 인적자원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

#### 4.1. 귀농가구의 현황

1997년 4월 기준 귀농가구는 약 6,238호로 추계된다. 1996년 말 기준으로 귀농 가구는 3,328호로서 전체 1,480천 농가중 약 0.4%에 불과하나 귀농가구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도의 경우 누계기준으로 약 33.0%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약 123.4% 증가하였다. 총농가 호수가 감소하는데 비하여 귀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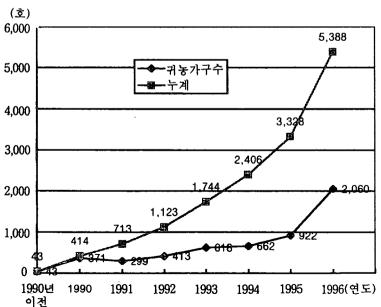


그림 3-7 연도별 귀농가구 수 분포

표 3-5 연도별 귀농 경영주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도 연령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4	누 계
29세 이하	22	12	22	48	57	96	111	52	420
	(5.9)	(4.0)	(5.3)	(7.8)	(8.6)	(10.4)	(5.4)	(6.1)	(6.8)
30~39세	166	151	207	294	288	338	681	285	2,410
	(44.7)	(50.5)	(50.1)	(47.6)	(43.5)	(36.7)	(33.1)	(33.5)	(38.9)
40~49세	90	64	110	130	136	206	596	260	1,592
	(24.3)	(21.4)	(26.6)	(21.0)	(20.5)	(22.3)	(28.9)	(30.6)	(25.7)
50-59세	55	47	45	86	125	176	477	170	1181
	(14.8)	(15.7)	(10.9)	(13.9)	(18.9)	(19.1)	(23.2)	(20.0)	(19.1)
60세 이상	38	25	29	60	56	106	195	83	592
	(10.2)	(8.4)	(7.0)	(9.7)	(8.5)	(11.5)	(9.5)	(9.8)	(9.6)
중)1)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850	6,19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부, 「현지조사자료」.

가구수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므로 향후 '귀농가구'가 총농가에서 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1990년 이래 귀농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30대가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가 25.7%를 점함으로써 30~40대의 젊은 농가경영주가 전체 귀농가구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시계열별로는 1997년에 접어들어 30대 귀농자의 비중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1년을 정점으로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40대의 귀농자의 비중은 199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 귀농자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4.2. 귀농 이유 및 농촌생활의 불편 사항

귀농이유는 "도시소득이 낮고 도시생활에 염증(3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사가 희망적"(25.2%), "영농승계(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농촌 및 농

표 3-6 연령별 귀농 이유

단위: 경영자 수, (%)

이유	농사	영농	도시소득 미흡 및	사업	노후	전원	건강	기타	합계
연령	희망적	승계	도시생활 염중	실패	대비	생활	관리	7191	H / 11
29세 이하	108	62	75	5	2	14	6	13	285
	(37.9)	(21.8)	(26.3)	(1.8)	(0.7)	(4.9)	(2.1)	(4.6)	(100.0)
30~39세	483	272	588	112	11	72	35	65	1,638
	(29.5)	(16.6)	(35.9)	(6.8)	(0.7)	(4.4)	(2.1)	(4.0)	(100.0)
40~49세	217	102	303	61	38	54	42	34	851
	(25.5)	(12.0)	(35.6)	(7.2)	(4.5)	(6.3)	(4.9)	(4.0)	(100.0)
50~59세	99	24	182	39	129	72	52	16	613
	(16.2)	(3.9)	(29.7)	(6.4)	(21.0)	(11.7)	(8.5)	(2.6)	(100.0)
60~64세	25	2	48	14	80	18	17	7	211
	(11.8)	(0.9)	(22.7)	(6.6)	(37.9)	(8.5)	(8.1)	(3.3)	(100.0)
65세 이상	9	2	29	8	64	15	10	2	139
	(6.5)	(1.4)	(20.9)	(5.8)	(46.0)	(10.8)	(7.2)	(1.4)	(100.0)
합계	941	464	1,225	239	324	245	162	137	3,737
H /1	(25.2)	(12.4)	(32.8)	(6.4)	(8.7)	(6.6)	(4.3)	(3.7)	(100.0)

자료: 농림부, 「현지조사자료」.

표 3-7 연령별 농촌생활의 불편사항

단위: 경영자 수, (%)

								·
항목	자녀	의료여건	교통	주거환	편의시	문화적	기타	합계
연령	교육	미비	Tr. 2	경(주택)	설이용	여건	/1 4	합세
29세 이하	68	51	25	30	35	64	11	284
	(23.9)	(18.0)	(8.8)	(10.6)	(12.3)	(22.5)	(3.9)	(100.0)
30~39세	768	232	117	149	117	215	37	1,635
	(47.0)	(14.2)	(7.2)	(9.1)	(7.2)	(13.1)	(2.3)	(100.0)
40~49세	388	124	79	90	58	90	20	849
	(45.7)	(14.6)	(9.3)	(10.6)	(6.8)	(10.6)	(2.4)	(100.0)
50-59세	100	158	109	73	90	65	15	610
	(16.4)	(25.9)	(17.9)	(12.0)	(14.8)	(10.7)	(2.5)	(100.0)
60~64세	16	74	45	20	27	23	6	211
	(7.6)	(35.1)	(21.3)	(9.5)	(12.8)	(10.9)	(2.8)	(100.0)
65세 이상	11	44	29	15	18	14	7	138
	(8.0)	(31.9)	(21.0)	(10.9)	(13.0)	(10.1)	(5.1)	(100.0)
합 계	1,351	683	404	377	345	471	96	3,727
H 71	(36.2)	(18.3)	(10.8)	(10.1)	(9.3)	(12.6)	(2.6)	(100.0)

자료: 농림부, 「현지조사자료」.

업을 직업 및 생활의 터전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반면 (농사가 희망적, 도시소득 및 생활염증, 영농승계), 50대 이후의 노년 층은 노후 및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귀농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 귀농가구 중에서 40대 이하가 점하는 비중이 약 71.4%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귀농한 농가경영주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대의 귀농 가구주 중에서 "농사가 희망적(37.9%)"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귀농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젊은 농가경영주의 농업에 대한 장래 기대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자녀교육의 문제", "의료여건의 미비", "문화적 여건의 열악", "교통문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연령계층(30~40대)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자녀교육의 문제를, 20대의 젊은 경영주는 농촌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의 부족을, 50대 이상의 고령 영농주는 의료여건과 대중교통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을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젊은 귀농 경영주일수록 농업을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간 주하기 때문에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으나 이 들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문화 및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3. 귀농가구의 영농 애로사항

귀농자의 영농 애로사항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34.1%)", "영농자금 부족(20.4%)", "노동력 부족(16.5%)", "농지부족(11.7%)"의 순으로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시설채소, 과수, 축산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작목에 종사하는 귀농자 일수록 "불안정한 농산물가격"문제를 영농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축산의 경우 초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농자금의 부족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영농형태별 영농 애로사항

단위: 경영자 수, (%)

항목 영농 형태	노동력 부족	농지 부족	과다한 노동	불안정한 농산물 가 격	영농자 금부족	농산물 유 통 구 조	농기계 구입및 수리	기타	합계
쌀농사	290	214	113	442	286	64	47	36	1,492
	(19.4)	(14.3)	(7.6)	(29.6)	(19.2)	(4.3)	(3.2)	(2.4)	(100.0)
화훼	18	8	8	23	17	9	1	3	87
	(20.7)	(9.2)	(9.2)	(26.4)	(19.5)	(10.3)	(1.1)	(3.4)	(100.0)
채소	81	69	30	237	96	32	6	6	557
	(14.5)	(12.4)	(5.4)	(42.5)	(17.2)	(5.7)	(1.1)	(1.1)	(100.0)
과수	69	28	26	163	57	33	11	4	391
	(17.6)	(7.2)	(6.6)	(41.7)	(14.6)	(8.4)	(2.8)	(1.0)	(100.0)
특용	26	11	7	35	23	7	3	4	116
	(22.4)	(9.5)	(6.0)	(30.2)	(19.8)	(6.0)	(2.6)	(3.4)	(100.0)
축산	81	71	40	296	210	42	8	17	765
	(10.6)	(9.3)	(5.2)	(38.7)	(27.5)	(5.5)	(1.0)	(2.2)	(100.0)
양봉	1	0	1	4	1	3	0	1	11
	(9.1)	(0.0)	(9.1)	(36.4)	(9.1)	(27.3)	(0.0)	(9.1)	(100.0)
약용	4	4	2	8	5	1	0	3	27
	(14.8)	(14.8)	(7.4)	(29.6)	(18.5)	(3.7)	(0.0)	(11.1)	(100.0)
기타	4545	3030	1717	6565	6767	1616	44	3838	282282
	(16.0)	(10.6)	(6.0)	(23.0)	(23.8)	(5.7)	(1.4)	(13.5)	(100.0)
조나 -네	615	435	244	1,273	762	207	80	112	3,728
합 계 	(16.5)	(11.7)	(6.5)	(34.1)	(20.4)	(5.6)	(2.1)	(3.0)	(100.0)

노동력 부족을 영농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는 농가는 참깨, 땅콩 등 노동을 기계로 생력적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특용작물을 경영하는 귀농가구이고 (22.4%), 그 다음이 화훼재배 농가(20.7%)이다. 그러나 이들 작물의 경우 노동력의 문제는 계절적 노동 수요 및 일시고용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재배특성상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할수 있다.

한편 귀농 연도별로 영농애로사항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귀 농자 연령별 영농 애로사항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귀농자 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력보다는 영농자금, 농지문제 등 노동력 이 외의 농업생산투입요소의 부족을, 그리고 생산물인 농산물 가격의 안 정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생산 활동에 있어 노동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력이외의 생산요소인 토지및 영농자금과 농산물의 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젊은 경영주들의 기대잔존생애가 노년층보다 많기 때문에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의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젊은 경영주일수록 농업부문에 투자를 증대하고자하는 유인이 높다. 그러나 젊은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인적자본을 제외한) 부존자원의 규모(토지및 영농자금)는 노년층보다 작기 때문에 이들 생산요소를 외부로부터차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젊은 귀농자일수록 인적자본 이외의 생산요소를 그리고 생산물 가격안정을 영농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농업구조개선이 마무리되고 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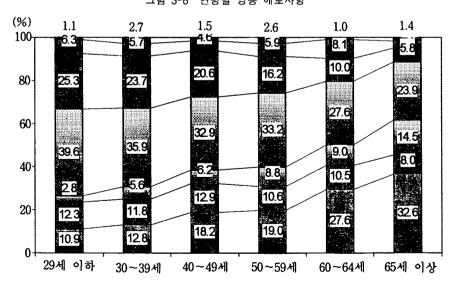


그림 3-8 연령별 영농 애로사항

 圖 노동력부족
 ■ 농지부족
 ■ 과다한 노동
 ■ 불안정한농산물가격

 ■ 영농자금부족
 ■ 농산물유통구조
 ■ 농기계구입수리

인력이 농업부문에 대거 유입될 때 농업생산의 애로사항은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외의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가격안정화라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농업부문으로의 젊은 인력의 유인 및 양성 등 농업인 력정책은 직접적인 육성책(후계인력육성, 전업농정책, 선도농업 경영 체 육성 등)보다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 및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의 투자 등 간접적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 4 장

#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 분석: 수도작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를 추정하여 향후 농업생산부문에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그러나 농업부문 전체의 노동력 수요 추정은 자료의 제약상<sup>30</sup>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인 쌀에 대하여 노동력 수요를 분석하여 농업부문 전체 농업노동력 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장은 크게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수도작의 농업노동력 계측을 위하여 「수도작의 비용함수 계측」하고, 둘째 계측된 비용함수를 이용하여「생산요소간의 대체관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수도작부문의 농업노동력 전망」한다.

## 1. 수도작 생산비핚수 계측

비용함수는 자료의 제약상 Cobb-Douglas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

<sup>30</sup> 생산요소별 생산비자료는 수도작 이외의 작물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 도작을 중심으로 농업노동력의 수요를 계측하여 앞의 수독작 농가의 노동력 공급가능성과 비교하여 향후 농업인력의 과부족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3 추정식의 구조는 다음 식과 같다.

$$(4-1) \ln \frac{C_{ij}(w, y)}{h_{ij}(y)} = \alpha_0 + \alpha_1 \ln w_1^{ij} + \alpha_2 \ln w_2^{ij} + \alpha_3 \ln w_3^{ij} + \alpha_4 \ln w_4^{ij} + \epsilon_{ij}$$

$$\sum_{i=1}^4 \alpha_i = 1$$

여기서 C(w,y)/h(y)는 10a당 쌀 생산비용<sup>32</sup>,  $w_1$ ,  $w_2$ ,  $w_3$ ,  $w_4$ 는 각각 토지, 노동, 비료 및 농약, 농구 및 축력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가격지수는 쌀의 생산비에서 각 생산요소의 지출비를 해당 요소의 사용량으로 나누어 해당생산요소의 단위당 지출비(=가격)를 구한 뒤 1990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가격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생산비에서 다음과 같이 수도작 생산요소의 가격을 구하였다.

<sup>31</sup> 따라서 Flexible Functional Form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소간의 대체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Chambers 1988, pp160-181참조).

<sup>32</sup> h(y)는 10a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양을 나타낸다.

토지용역비에는 식부지 및 식부지 이외의 토지용역비와 함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유지비, 임차료 및 수세를 포함하였다. 노동비용에는 미곡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가족노동력과 고용노동력의 비용을 포함하였는데 고용노동력 비용에는 실제로 지불한 임금과 제공된 현물의 평가액을 품삯으로 계산하였고, 가족노동력의 비용은 남의 집에 고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비료 및 농약 비용은 유·무기질비료, 토양개량제비용과 구입비료비에 대한 자본이자를 포함하였다. 농기계 및 축력사용비는 미곡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대농기구의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축력 포함) 등의 비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비용함수는 그 정의에 의하여 생산요소 가격에 대하여 일차 동차성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sum \alpha_i$ =1의 제약 조건하에서 추정하였고 추정자료는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의 농산물 생산비 통계자료를 1964년부터 1994년까지 활용하였다. 10a당 생산비 자료가 갖는 한계(즉, 규모의 경제성을 나타낼 수 없는)를 극복하고 관찰치를 높이기위하여 영농규모별로 자료를 Pooling하였다. 한편 자기상관관계 (autocorrelation)와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방법(MLE)으로 추정하였고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계 수	추 정 치	t-값	(해당 변수의) 평균치
α 0	8.1941	665.882	
$\alpha_1$	0.56511	22.522	3.0025
lpha 2	0.14758	7.266	2.8772
$\alpha_3$	0.080678	8.571	4.0330
lpha 4	0.20663	7.986	3.1437

표 4-1 비용함수 추정결과

 $R^2 = 0.9988, \quad F*(4, \quad 145) = 31891.75, \quad Pr(F \geq F*) = 0.2307706E - 211, \quad F*(1, \quad 145) \quad \text{for the restrictions} = 7.9696, \quad Pr(F \geq F*) = 0.0054$ 

Log-likelihood function=312. 494

위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4-2) 
$$\ln \frac{c(w,y)}{h(y)} = 8.1941 + 0.56511 \ln w_1 + 0.14758 \ln w_2 + 0.080678 \ln w_3 + 0.20663 \ln w_4 + e_1$$

(4-3) 
$$c(w, y) = h(y) [e^{8.1941} w_1^{0.56511} w_2^{0.14758} w_3^{0.080678} w_4^{0.20663}]$$

추정된 비용함수 (식 4-3)은 비용함수가 생산요소가격에 대하여 1 차 동차성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격과 생산량에 대하여 비음이고 비감소함수라는 제반 조건을 만족한다.

## 2. 생산요소의 가격 및 대체탄력도

농업노동력과 다른 생산요소간의 수요가 가격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간의 대체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위의 비용함수에서 생산요소수요함수를 도출 한다. Shephard's Lemma에 의하여 각 생산요소의 유도수요함수 (derived deman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4-4) 
$$X_A(w, y) = 0.56511 h(y) [e^{8.1941} w_1^{0.56511} w_2^{0.14758} w_3^{0.080678} w_4^{0.20663}]/w_1$$

(4-5) 
$$X_L(w, y) = 0.14758h(y)[e^{8.1941}w_1^{0.56511}w_2^{0.14758}w_3^{0.080678}$$
  
 $w_4^{0.20663}]/w_2$ 

(4-6) 
$$X_{M}(w, y) = 0.080678h(y) \left[ e^{8.1941} w_{1}^{0.56511} w_{2}^{0.14758} w_{3}^{0.080678} \right]$$

(4-7) 
$$X_T(w, y) = 0.20663h(y)[e^{8.1941}w_1^{0.56511}w_2^{0.14758}w_3^{0.080678}$$
  
 $w_4^{0.20663}]/w_4$ 

여기서  $X_A$ ,  $X_L$ ,  $X_M$ ,  $X_T$ 는 각각 토지, 노동, 비료 및 원자재, 축력 및 농기구 유발수요이다. 따라서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수식 4-9)와 같다.

(4-8) 
$$\varepsilon_{ij} = \frac{\partial x_i(\dot{w}, y)}{\partial w_j} \frac{w_j}{x_i(w, y)}$$

$$\varepsilon = \begin{pmatrix} \varepsilon_{AA} & \varepsilon_{AL} & \varepsilon_{AM} & \varepsilon_{AT} \\ \varepsilon_{LA} & \varepsilon_{LL} & \varepsilon_{LM} & \varepsilon_{LT} \\ \varepsilon_{MA} & \varepsilon_{ML} & \varepsilon_{MM} & \varepsilon_{MT} \\ \varepsilon_{TA} & \varepsilon_{TL} & \varepsilon_{TM} & \varepsilon_{TT} \end{pmatrix}$$

$$= \begin{pmatrix} -0.435 & 0.148 & 0.081 & 0.207 \\ 0.565 & -0.852 & 0.081 & 0.207 \\ 0.565 & 0.148 & -0.919 & 0.207 \\ 0.565 & 0.148 & 0.081 & -0.793 \end{pmatrix}$$

추정 결과 전반적으로 수도작의 경우 생산요소수요의 가격탄력도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탄력도는 "비료 및 농약"이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노동", "축력 및 농기계"의 순이다. 농업노동수요의 농기계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207로서 농기계 가격 1% 변할 때 노동수요는 약 0.2%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농기계 가격변동에 의한 농업노동수요의 변화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향후 농기계가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노동력 수요를 크게 절감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 토지구입비 보조 및 융자는 농업노동 수요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농기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력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과 더불어 농지 수요자 가격의 하락을 통한 농지유동화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소간의 대체탄력성( $\sigma_{ij}$ )과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varepsilon_{ij}$ )간의 관계와  $\mathbf{a} \cdot \mathbf{r}$  다글라스(Cobb-Douglas) 함수의 경우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은 "1"이라는 성질에서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4-10) \quad 1 = \sigma_{ij} = \varepsilon_{ij} \frac{1}{s_j}$$

$$\varepsilon_{ij} = s_j$$

여기서 si는 j번째 요소가 생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s_j = \frac{w_j x_j}{c(w, y)} \quad \text{old}.$$

 $\varepsilon_{ij}$ 가 작다는 것은 j 번째 생산요소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고 노동수요의 농기계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미작생산비에서 농기계가 점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농기계 비용이 생산비용에서 점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은 농기계 투하량이 작든가 아니면 농기계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농기계 가격은 정부의 보조 및 통제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농기계 가격 반값 공급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비용이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은 것은 농기계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낮은 수준의 농기계 가격은 농민에게 가격의 의사결정 신호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농기계의 자체 가격탄력성이 토지를 제외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낮다는 데에서도확인할 수 있다. 비료 및 원자재의 자체가격탄력도(-0.919), 노동의 자체가격탄력도(-0.852), 농기계의 자체가격탄력도(-0.793), 토지의 자체가격탄력도(-0.435)의 순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농민들의 생산요소 수요가 탄

력적으로 변동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따라 농민들의 다른 생산요소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농기계는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업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이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는 수반되지 않는다. 이는 주어진 영농조건 및 기술체계하에서 농기계의 공급으로 농업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작의 기술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0a 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고정 자산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축력 및 농구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과 "축력 및 기계(자본)"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계측되었다. 농기계 가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농업노동력수요가 매우 적게 감소하고 이는 농기계 가격을 낮추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농업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권태진(1985), 홍승지(1994), 김정호, 위용석(1997)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홍승지에 따르면 1992년도 횡단면 수도 작 생산비를 이용하여 Translog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정하여 Allen의 대체탄력성을 계측한 결과 노동과 농기계간의 대체탄력성은 약 0.5068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생산요소간의 대체탄력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982년도 보다 대체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1982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농기계의 대체탄력성은 0.7054인데 10년 동안 대체탄력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권태진, 1985).

이와 같이 농기계와 농업노동력과의 대체성이 감소하는 것은 농기계의 이용도가 경지정리, 포장분산 정도, 포장당 필지수, 필지당 평균면적 등과 같은 경제외적 변수인 수도작 생산구조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기계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노동과 기계간의 대체성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기계 가격의 하락을 통한 노동과 기계간의 대체는 농기계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 및 농기계의 대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경지조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보고서의 요소의 (교차)가격탄력성에 농기계가격이 감소하더라도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나아가 농기계와 농업인력간의 대체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농기계의 작업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주요 농기계 1대

(ha) 단위: ha 25 20 15 10 5 0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경운기 3.4 3.2 2.7 2.6 2.2 1.9 1.6 쑭--트랙터 19.6 17.7 14.1 18.5 15.6 17.3 16.6 -이앙기 4.6 4.4 4.2 4.3 2.7 3.6 3.6 -바인더 2.1 2.2 1.8 1.6 1.6 1.5 1.3 -콤바인 10.1 11.3 10.5 11.5 9.5 10.3 9.7

그림 4-1 주요 농기계의 대당 연간 작업면적 추이

자료: 농림부 및 농기계협동조합.

<sup>33</sup> 농협중앙회의 「농촌물가 및 임료금 조사」에 의하면 1979~1992년의 14년 동안 농촌노임은 약 5배 상승한 것에 비하여 농기계류의 가격은 1.5배, 비료가격은 약 1.6배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연간 작업면적은 (그림 4-1)과 같은데 1990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즉, 과거 공급위주의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업내부에서 농업기계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시작된 농기계 반값공급정책은 중소농가들에게 농기계 보급을 빠르게 진전시켜 경쟁력을 제고 시켰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업농과 농업법인회사들의 농기계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농기계의 과잉 공급 및 보유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결과 농기계 작업면적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고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기계 1대당 연간작업면적은 1990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당 농기계 작업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만큼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과잉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쌀 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 전망

쌀 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앞에서 추정한 미작 농업의 노동력 수요함수를 이용한다. 수도작의 생산요소가격 변동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여 향후 수도작 생산 부문의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미작 농업의 노동력 수요는 앞 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다.

(4-11) 
$$X_L(w, y) = 0.14758h(y)$$

$$[e^{8.1941}w_1^{0.56511}w_2^{0.14758}w_3^{0.080678}w_4^{0.20663}]/w_2$$

여기서 h(y)는 10a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h^{-1}(\cdot)$ 는 10a에서 생산되는 쌀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분석의 편의상 h(y)를 10a로 간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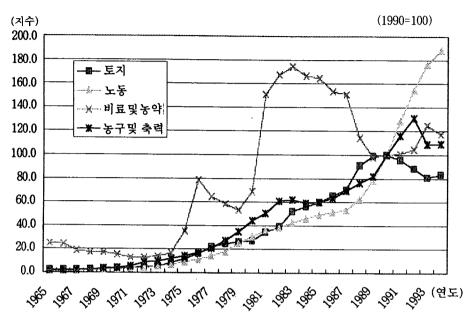


그림 4-2 미작 생산요소의 가격지수 변화 추세

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추세는 (그림 4-2)에 도시 되어 있다. 농업임금, 농기계 가격, 토지용역비 등은 1990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노임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경제 전반의 고임금과 일치한다. 비료 및 농약 가격이 1980년대에 상승한 것은 비료가격의 자유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각 생산요소 가격지수의 변화율의 추세치를 이용하여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치를 전망하여 노동력 수요를 전망할 수 있다. 토지가격, 농업임금, 비료 및 농약, 농구 및 축력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의 추세치 추정에서 전망한다. 즉, 각 생산요소 가격의 연평균 변화율을 추정한 뒤 2000~2005년도의 생산요소 가격이 이 변화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추정식의 구조는,

$$\ln(W_i^t) = a + bt + \varepsilon_t$$

버스田	추	정 치	$\mathbb{R}^2$	F값	$Pr(F > F^*)$	
변수명	상수항	연평균변화율	K	1 11	11(1 > 1 /	
T (TTT)	0.7985989	0.1519965	0.941832	453.3683	0.000000	
Ln(W <sub>1</sub> )	(6.625)	(21.292)	0.541052	400.000	0.00000	
T (337.)	0.2713901	0.1797107	0.979566	1342.205	0.000000	
$Ln(W_2)$	(3.276)	(36.637)	0.373300	1042.200	0.00000	
T (337.)	2.7304554	0.0898281	0.692941	63.18778	0.000000	
Ln(W <sub>3</sub> )	(14.308)	(7.949)	0.052541	03.10776	0.000000	
T (777.)	0.8933124	0.1551996	0.935958	409.2142	0.000000	
Ln(W <sub>4</sub> )	(6.895)	(20.229)	0.303300	403.2142	0.00000	

표 4-2 미작 생산요소가격의 연 평균 변화율 추정치, 1965~95년

여기서 ( )은 t 값임, F\*는 임계값임.

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t는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965년은 t=0이고  $W_i^t$ 는 t기의 i번째 생산요소가격으로서 i=1 토지, i=2 노동, i=3 비료 및 농약, i=4 농기계를 각각 나타낸다.  $\epsilon_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각 생산요소의 연평균 변화율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 가격의 연평균 변화율을 이용하여 미곡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수요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식 4-11)을 양변 자연대수로 변환하여 시간 t에 대하여 미분한다.

$$\ln X_L(w, y) = A(y) + 0.56511 \ln w_1 - 0.85242 \ln w_2 +$$

$$0.080678 \ln w_3 + 0.20663 \ln w_4$$

여기서 A(y)는 상수로서 0.14758 + h(y) + 8.1941과 같고 위 식을 시간 변수 t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기술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sup>3</sup>

<sup>&</sup>lt;sup>34</sup> 기술수준이 발전할 경우 10h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은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동일한 미곡생산량에 소요되는 수도작 면적은 감소하고 이 경

$$\frac{d\ln X_L(x, y)}{dt} = 0.56511 \frac{d\ln w_1}{dt} - 0.85242 \frac{d\ln w_2}{dt} + 0.0080678 \frac{d\ln w_3}{dt} + 0.20663 \frac{d\ln w_4}{dt}$$

위 식에 (표 4-2)에서 계측한 각 생산요소의 연평균 변화율을 대입하면 수도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연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결과 수도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연평균 변화율은 약 -2.8%에 달한다. 즉, 향후 생산요소간의 상대적 가격변화가 없고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율이 (표 4-2)와 같이 유지 된다면 수도작의 노동수요는 연평균 2.8%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수급이 균형에 놓여 있고, 수도작 종사자의 기간인력(수도작 주종사자)의 수요가 위와 같이 연평균 2.8%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000년도와 2005년도의 수도작 부문의 기간 노동력의 수요는 각각 1,219천명과 1,060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sup>55</sup>

우 윗 식에서 가정한 상수항은 시간에 따라 마이너스변화를 띄게 되어 시간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율이 위에서 계산한 연평균 -2.8% 보다 클 수있다. 따라서 연평균 2.8%로 수도작 농업의 인력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수도작 노동수요 감소율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sup>35</sup> 수도작 주종사자 인구(즉, 수도작 기간인력)가 연평균 2.8%씩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 제 5 장

# 쌀 생산부문의 노동력 수급 전망

이 장에서는 향후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수급전망을 앞에서 분석한 계량경제학적 측면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이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과부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은 크게 두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절은 「수도작 생산부문의 노동력 과부족 전망」이고 두 번째 절은 미작농가의 전업농육성정책과 관련하여수도작 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1.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과부족 전망

앞 장에서 계산한 수도작 부문의 노동력 공급과 노동력 수요를 이용하여 2000년대 초반의 노동력 수급전망을 할 수 있다. 수도작의 노동수요는 1995~2005년 동안 연평균 약 2.8% 감소하는 반면 노동공급은 약 3.1~3.7%씩 감소하는 등 노동 공급량이 수요보다 더 빨리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1995년말 현재 수도작에 있어 노동시장이 균형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면 향후 수도작에 노동력 부족이예상된다. 즉. 현재의 수도작 영농기술이 주어져 있고 생산요소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향후 수도작에 있어 노동력의 부족을 야 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산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2%에 머물 때 동기간동안 노동공급은 연평균 약 0.5~2.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도까지는 수도작부문에 노동력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IMF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수도작부문의 노동공급은 2000~2005년 동안 연평균 약 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2005년도에 수도작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약 94~17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도에 전망되는 수도작 노동수요(1,060~1,219천명)의 약 8.9~14.6%에 달하여수도작 부문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도작 생산부문의 주종사자 수가 1995~2005년 동안 연평균약 3.1~3.7%씩 감소하고, 10a당 쌀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 수요가연평균 2.8%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2000년도에는 기간인력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5년도 수도작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인력은 전체적으로 약 8.9~14.6%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도작 농가의 주종사자의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작의 노동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도작 농가의기간인력은 규모에서 부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적자본의 질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쌀 생산공급의 자급률이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앞선다.

주어진 쌀 생산조건(토지규모, 경지조건, 포장당 필지수 및 필지당 평균 경작규모 등) 하에서, 현재와 동일한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노동량에 수도작의 기간 노동공급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경지조건의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쌀 식부면적의 감소와 함께 휴경면적의 증가 등 쌀 자급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를 개선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들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지조건의 향상 및 대규모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젊은 유효 인력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젊은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은 앞의 귀농자의 영농애로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20~30대 경영주일수록 토지구입의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인적자본의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은 토지공급, 즉 농지유동화를 어떻게 촉진시킬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수도작 생산요소의 (교차)가격탄력성에서 노동수요에 가장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가격이라는 사실에서 토지가격의 인하 없이는 수도작의 노동수요의 추가적 감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지조건 개선과 함께 토지가격의 인하와 및 농지유동화를 통한 농지공급정책이 향후 쌀 자급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 전망된다.

# 2. 수도작 전업농 육성책의 정책목표 적합성

## 2.1. 농업인력 정책의 개관

농림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력 정책(정예인력 사업)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가족농 육성사업, 법인 및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 등이다.

농업인력 정책사업의 목표는 첫째, 생산성이 높고 농업경영능력이 뛰어나며 농업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경영할 양질의 전문 영농인력 및 경영체를 확보·육성하는 것이고, 둘째 농업인력의 문제를 양적인 부족보다는 질적인 취약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

<sup>36</sup> 휴경지 증가 추세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2장 4절 참조.

구 분	정 책 수 단
가족농 육성사업	농업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 선도경영체육성
법인 경영체육성 사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교육 및 훈련지원	학교교육을 통한 전문후계인력 육성 관련기관·단체의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 학습단체 육성사업

표 5-1 정예인력사업의 유형

자료: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업무자료」, 1997. 9.

력 문제의 핵심은 농업의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담당할 유능하고 의 욕적인 점은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가족농 육성사업은 농업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선도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전업농육성책은 2004년까지 총 14만 호를 품목별 전업농으로 지정하여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육성하고 있다. 한편 수도작에 있어서는 쌀 전업농 가를 호당 평균 5~10ha규모로 약 6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육 성 목 표 농업인후계자 육성 40세 미만 후계자의 취농지원 연간 1만명 수준 전업농 육성 품목별로 경영개선 지원 2004년까지 총12만명 선도농업경영체 육성 발전모델로 제시 가능한 경 2004년까지 970개소

표 5-2 가족농 육성

자료: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업무자료」, 1997. 9.

<sup>&</sup>lt;sup>37</sup> 농림부, 「실무검토자료」, 1997. 7, 농림사업평가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사업평가」, 1997. 12 참조.

## 2.2. 미작 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 부합성

수도작 전업농 육성정책은 경지규모를 확대하여 쌀 생산비를 줄여 가격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쌀 농사만으로써 도시가 구의 평균소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쌀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약 8ha으로 추계된다.<sup>8</sup> 이 경우 6만 쌀전업농을 육성목표로 할 때 48ha 정도의 경지면적이 쌀 전업농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런데 미작농가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2005년도에 쌀 생산농가는 약 39~57만호 정도로 추계되고(부록 참조) 정부의 쌀생산면적은 2005년도에 약 92만ha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쌀전업농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6만 쌀 전업농가가 경작하는 재배면적이 총 쌀생산(목표)면적의 약 52.2%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쌀 전농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농가가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대폭 공급(매도 및 장기임차)하여야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5년 호당 쌀 경작면적 약 0.8ha가 2005년도 일반 미작농가의 호당 평균규모로 지속된다는 가정과 함께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미작농가 호수전망에서 2005년도의 일반 미작농가의 농지수요 면적과 쌀전업농의 경지수요면적을 시산할 수 있다.

<sup>&</sup>lt;sup>38</sup> 농림부, 「실무검토자료」, 1997. 7.

<sup>39</sup> 쌀전업농의 호당 경작면적을 약 5~10ha 규모로 할 경우 6만 쌀 전업농가에 소요되는 경지면적은 약 30~60ha가 소요된다.

<sup>40 2005</sup>년도 미작농가수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상이하게 전망된다. 1995년말 현재 823천호 미작농가는 2005년도에 IMF외화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387천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IMF외환위기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1998~2000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2%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때 미작농가의 감소속도가 감소한다고 가정함) 따라 511~569천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1995~2000년 10년동안 미작농가의 연평균 감소율은 약 3.1~5.3%에 달한 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이 경우 2005년도의 쌀 생산농가의 호당 평균 경작규모는 약 1.6~2.4ha가 된다.

미작농가수의 감소율이 IMF외환위기와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한속도로 감소하고 쌀전업농이 아닌 일반 미작농가의 수도작 농지 경작면적이 1995년과 동일하게 호당 평균 약 0.8ha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2005년도의 호당 평균 약 5~10ha 영농규모의 6만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는 농지공급가능 측면에서 달성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왜냐하면 2005년도의 일반 미작농가의 수가 약 387천호로 전망되고 이들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규모가 약 0.8ha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들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규모가 약 0.8ha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들농가가 수요하는 수도작 경작 면적은 약 31만ha에 이르고 6만 쌀전업농의 수도작 경지수요는 약 30~60만ha가 되어 2005년도의 수도작 생산을 위한 농지면적의 최대수요는 약 91만ha이 되어 2005년도의 수도 생산을 위한 경지(목표)공급가능량 약 92만ha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수도작 농가의 이농률이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즉, 농가의 이농률이 감소할 경우) 6만 쌀 전업농의 농지수요는 전체 쌀생산 목표면적 92만ha를 초과할 수 있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미작농가의 감소율이 약3.1%에 머물러 2005년도 미작농가수가 약511~569천호에 이르고, 일반 미작농가의 호당 평균 수도작 경작면적이 약0.8ha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미작농가의 수도작 경지수요면적은 약41~45만ha에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여기에 6만 전업농의 육성을 위한 수도작 목표면적이 약30~60만ha가 추가될 경우2005년도의 수도작을 위한 경지규모는 약71~105만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2005년도의수도작 경작(목표)면적 92만ha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나리오별 수도작 경지수요면적이 (표5-3)에 시산 되어있다.

쌀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작규모를 8ha로 가정할 경우 2005년도 6만 쌀전업농의 수도작 경지규모는 약 48만ha에 달하고 일반 미작농가의 경작면적 약 41~45ha를 합하면 2005년도 수도작에 소요되는 농경지의 면적은 약 89~93만ha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 경우 쌀전업농

표 5-3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별 일반 미작농의 농지 수요와 전업농의 농지 수요, 2005년

단위: 만ha

A	종전: 동일한		l	1998~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2%			1998~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ь	387천호	합계	511천호		합계	569천호		합계	
5ha	30 31	61	30	41	71	30	45	75	
8ha	48	79	48	41	89	48	45	93	
10ha	60	91	60	41	101	60	45	105	

A: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B: 쌀 전업농 호당 평균 경작규모.

이 경작하는 논 면적은 수도작 전체 면적의 약 51.6~53.9%에 이르게 되고 6만 쌀전업농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수도 작 전체 면적의 과반수 이상이 쌀전업농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6만 쌀전업농 육성정책의 성공여부는 농지의 유동화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의 미작농가인구수 및 농가호수가 IMF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하게 감소한다면 논의 초과수요가발생하지 않지만 IMF외환위기로 미작농가수의 감소속도가 감소한다면 쌀전업농 육성정책은 논의 초과수요를 수반하여 쌀 생산을 위한논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 쌀전업농에게 전체 논 면적의 50%이상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농가로부터 쌀전업농으로 논의 소유권또는 경작권이 대폭 이전되지 않는 한 6만 쌀전업농 정책은 그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한편 전체 수도작 면적의 50%이상을 쌀전업농에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자금수요. 즉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지규모화

사업, 나아가 노령경영주의 경영이양 장려 등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1.3~43조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다(6만쌀 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작면적을 8ha라 가정하면 총 48만ha가 전업농에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를 경영이양으로 충당할 때 1ha당 286만원기준으로 약 1.3조, 농지매매를 가정할 경우 융자금 평당 30,000원 기준으로 약 43조원 소요).

6만 쌀 전업농 육성정책은 농지공급 가능성 및 이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치 수정이 필요하다. 쌀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치 축소와 전업농의 일반 미작농가의 벤처마킹으로서의 역할에 국한 또는 최소한의 수급조절용 생산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새롭 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농가인구와 경영주는 지난 5년 동안 고령화가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1995년 6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4,851천명 중 1,254천명으로 약 25.8%를 점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1990년 대 접어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촌탈농형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재촌탈농형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겸업농가의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전업농가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업농의 경영 규모는 젊은 경영주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세소농 구조하에서 경영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농가인구의 고학력화와, 영농형태의 다양화, 전문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체제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업지대의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대)별, 영농 형태별 농가인구와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평야지대 일수록 젊은 농가인구층과 경 영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외취득원 및 생활여건 편 리). 영농형태별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일 수록 젊은 경영주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고령화화 함께 지난 5년 사이(1990~95) 영농승계자 확보율 감소한 것은 농업경영인력의 부족과 농가경영의 지속성 문제 등 농업경영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야지대 일수록 영농후계자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영농승계자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인구의 전망은 IMF 외환위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2000 년도에 남자가 약 1,813천명 여자가 1,887천명, 2005년도에 남자 1,374천명 여자 1,425천명으로 1995~2005년 동안 농가인구수 남자 2,373천명, 여자 2,478천명에서 연평균 각각 약 4.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감소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2005년도의 60대 이상의 농가인구수 비중은 남자가 37.0%, 여자가 42.4%로 약 절반에 가까운 농가 인구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로 남아 있고 65~69세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역 삼각형 형태를 띄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MF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농가인구수 전망은 2000년도에 4,421(남자: 2,148천명, 여자: 2,273천명)~4,771천명(남자: 2,311천명, 여자: 2,459천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연평균 감소율 0.3%~1.8%), 2005년도에는 3,310(남자: 1,614천명, 여자: 1,695천명)~3,555천명(남자: 1,732천명, 여자: 1,823천명)으로 연평균약 5.0~5.1%식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5년도의 농가인구의연령별 구성은 6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36.4~37.6%, 20~30대 젊은 농가인구수 비중은 약 12.8~23.3%가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주종사자는 2000년도에 경제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라 2,336~2,506천명 수준으로 전망되었고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은 -0.27~-1.7%로 추정 전망되었다. 한편 1998~200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농가인구중 20대 농업주종사와 30대의 남자 주종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비농업부

문의 취업기회 및 소득원의 저하로 농가인구 중 신규취업자의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농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수도작 농가의 기간인력 공급전망은 경제성장 시나리오별로 2000 년도에 약 1,257~1,370천명 수준, 2005년도에 882~96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약 3.7~4.6%식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60대 이상의 주종사자 비중이 50%를 초과하 는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미작농가의 주종사자가 심각하게 고령화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력공급 가능성으로서 귀농농가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어릴수록 영농자금 및 농지부족을 영농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는 반면 고령귀농자일수록 노동력 부족을 영농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구조개선과 함께 젊은 영농인력이 신규유입 될 때 노동력 문제는 영농의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전망을 한 결과 2000도와 2005년도의 수도작부문의 기간인력수요는 각각 1,219천명과 1,060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수도작 생산부문의 기간인력은 8.9~14.6%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수도작 농가의 주종사자의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작의 노동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도작 농가의 기간인력은 규모에서 부족이발생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적자본의 질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향후 국내 쌀 생산공급의 자급율이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앞선다.

주어진 쌀 생산조건(토지규모, 경지조건, 포장당 필지수 및 필지당 평균 경작규모 등) 하에서, 현재와 동일한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노동량에 수도작의 기간 노동공급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경지조건의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쌀 식부면 적의 감소와 함께 휴경면적의 증가 등 쌀 자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개선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지조건의 향상 및 대규모화, 인력을 대체할수 있는 농기계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젊은 유효인력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젊은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은 앞의 귀농자의 영농애로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20~30대 경영주일수록 토지구입의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젊은 인적자본의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은 토지공급, 즉 농지유동화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작 생산요소의 (교차)가격탄력성에서 노동수요에 가장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가격이라는 사실에서 토지가격의 인하없이는 수도작의 노동수요의 추가적 감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지조건 개선과 함께 토지가격의 인하와 및 농지유동화를 통한 농지공급정책이 향후 쌀 자급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 전망된다.

이와 함께 쌀 농업의 경우 호당 평균 8ha 영농규모의 6만 전업농육성은 농지공급애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쌀 전업농의 수도작 재배면적의 전체 수도작 면적(목표년도 92만 ha)의 52.2%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령농가의 조기은퇴 및 경영이양 등 농지유동화 정책지원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함께 영농부문의 인적자본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귀농자의 영농애로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 이 직접적인 노동력 유입정책보다는 농업부문의 교역조건의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교육, 의료시설 등)" 등 간접적인 방식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력정책은 생산부문에서 경영주의 퇴출과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전업농 육성책이 소기의 효 과를 갖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토지공급의 원활한 수반 등 중·단기적 전략과 함께 농업 생산활동과 함께 농촌지역이 삶의 터전 으로서 우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장기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 록

농가인구의 전망(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2% 가정)

# 圆圈

### 부록: 농가인구의 전망(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2% 가정)

부표 1 연평균 경제 성장률에 따른 순이농률

연 령		0~199 제 이농		성장률 3%			성장률 2%			성장률 1.5%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0- 4세	0.9326	0.9081	0.9211	0.3941	0.3837	0.3892	0.2627	0.2558	0.2595	0.1970	0.1919	0.1946
5- 9세	0.0235	0.0159	0.0198	0.0099	0.0067	0.0084	0.0066	0.0045	0.0056	0.0050	0.0034	0.0042
10-14세	0.1205	0.1033	0.1120	0.0509	0.0436	0.0473	0.0339	0.0291	0.0315	0.0255	0.0218	0.0237
15-19세	0.3334	0.3497	0.3413	0.1409	0.1478	0.1442	0.0939	0.0985	0.0961	0.0704	0.0739	0.0721
20-24세	0.7089	0.8711	0.7799	0.2995	0.3681	0.3295	0.1997	0.2454	0.2197	0.1498	0.1840	0.1648
25-29세	0.4034	0.7188	0.5352	0.1705	0.3037	0.2261	0.1136	0.2025	0.1508	0.0852	0.1519	0.1131
30-34세	0.5302	0.2647	0.4009	0.2240	0.1118	0.1694	0.1494	0.0746	0.1129	0.1120	0.0559	0.0847
35-39세	0.2631	0.1649	0.2118	0.1112	0.0697	0.0895	0.0741	0.0465	0.0597	0.0556	0.0348	0.0447
40-44세	0.1005	0.0963	0.0984	0.0425	0.0407	0.0416	0.0283	0.0271	0.0277	0.0212	0.0203	0.0208
45-49세	0.0856	0.0791	0.0820	0.0362	0.0334	0.0347	0.0241	0.0223	0.0231	0.0181	0.0167	0.0173
50-54세	0.0604	0.0695	0.0653	0.0255	0.0294	0.0276	0.0170	0.0196	0.0184	0.0128	0.0147	0.0138
55-59세	0.0876	0.1238	0.1071	0.0370	0.0523	0.0452	0.0247	0.0349	0.0302	0.0185	0.0262	0.0226
60-64세	0.0352	0.1398	0.0918	0.0149	0.0591	0.0388	0.0099	0.0394	0.0259	0.0074	0.0295	0.0194
65-69세	0.1132	0.2739	0.1961	0.0478	0.1157	0.0829	0.0319	0.0772	0.0552	0.0239	0.0579	0.0414
70-74세	0.1426	0.3188	0.2344	0.0603	0.1347	0.0991	0.0402	0.0898	0.0660	0.0301	0.0674	0.0495
75-79세	0.2123	0.2716	0.2471	0.0897	0.1148	0.1044	0.0598	0.0765	0.0696	0.0449	0.0574	0.0522
80세이상	0.2704	0.1661	0.1952	0.1143	0.0702	0.0825	0.0762	0.0468	0.0550	0.0571	0.0351	0.0412
평 균	0.2472	0.2506	0.2489	0.1044	0.1059	0.1052	0.0696	0.0706	0.0701	0.0522	0.0529	0.0526

부표 2 농가인구의 전망: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

단위: 명, (%)

	1995	년도 농	가인구	20	)00농가	 인구	20	)00농가약	 인구
연 령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0- 4세	65,799	55,764	121,563	85,604	76,635	162,239	37,109	33,570	70,679
5- 9세	103,904	93,689	197,593	65,061	55,316	120,377	83,664	75,457	159,121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98,978	89,732	188,710	55,664	48,165	103,829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64,739	159,907	324,646	61,168	52,529	113,697
10대이하	(23.8)	(21.7)	(22.7)	(19.3)	(16.8)	(18.0)	(14.7)	(12.4)	(13.5)
20-24세	75,850	152,676	328,526	176,112	171,186	347,298	75,220	59,338	134,558
25-29세	52,838	92,883	245,721	157,510	129,862	287,372	119,608	91,412	211,020
20대	13.9	9.9	11.8	(15.5)	(13.2)	(14.4)	(12.1)	(8.9)	(10.4)
30-34세	108,391	94,850	203,241	134,004	85,926	219,930	95,917	104,416	200,333
35-39세	128,694	132,793	261,487	99,244	89,376	188,620	106,225	72,352	178,577
30대	(10.0)	(9.2)	(9.6)	(10.9)	(7.7)	(9.2)	(12.5)	(10.4)	(11.4)
40-44세	132,327	146,458	278,785	123,736	128,396	252,132	87,722	79,001	166,723
45-49세	146,863	161,242	308,105	126,743	141,873	268,616	111,641	117,239	228,880
40대	(11.8)	(12.4)	(12.1)	(11.7)	(11.9)	(11.8)	(12.3)	(11.6)	(12.0)
50-54세	169,611	208,043	377,654	139,773	155,517	295,290	115,562	130,304	245,866
55-59세	224,137	265,211	489,348	156,174	195,524	351,698	121,021	132,327	253,348
50म	(16.6)	(19.1)	(17.9)	(13.8)	(15.4)	(14.6)	(14.7)	(15.5)	(15.1)
60-64세	219,470	250,718	470,188	202,675	246,278	448,953	137,604	161,172	298,776
65-69세	149,170	171,122	320,292	183,662	221,527	405,189	156,859	179,259	336,118
70-74세	108,115	113,587	221,702	114,113	144,126	258,239	130,436	155,884	286,320
75-79세	58,131	68,825	126,956	72,933	91,514	164,447	67,554	99,724	167,278
80세이상	35,032	80,719	115,751	46,591	90,550	137,141	51,440	103,319	154,759
60대이상	(24.0)	(27.6)	(25.9)	(28.9)	(34.9)	(32.0)	(33.7)	(41.2)	(37.6)
합 계	2,372,999	2,478,081	4,851,080	2,147,652	2,273,245	4,420,897	1,614,414	1,695,468	3,309,882

부표 3 농가인구의 전망: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2% 가정

단위: 명, (%)

0- 4세 6,579 955,764 121,563 113,595 100,714 214,309 39,410 36,064 7 5- 9세 103,904 93,689 197,593 65,619 55,651 121,270 111,261 99,300 21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103,753 93,632 197,385 55,919 48,292 10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82,423 178,184 360,607 62,728 53,127 11	75,474 0,561 04,211 5,855 (14.2)
남 역 합계 남 역 합계 남 역 합계 남 역 학계 남 역 학계 남 10-4세 6,579 955,764 121,563 113,595 100,714 214,309 39,410 36,064 75-9세 103,904 93,689 197,593 65,619 55,651 121,270 111,261 99,300 21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103,753 93,632 197,385 55,919 48,292 10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82,423 178,184 360,607 62,728 53,127 11	75,474 10,561 04,211 .5,855
5- 9세 103,904 93,689 197,593 65,619 55,651 121,270 111,261 99,300 21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103,753 93,632 197,385 55,919 48,292 10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82,423 178,184 360,607 62,728 53,127 11	10,561 04,211 .5,855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103,753 93,632 197,385 55,919 48,292 10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82,423 178,184 360,607 62,728 53,127 11	04,211 .5,855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82,423 178,184 360,607 62,728 53,127 11	5,855
	.5.28. s
naging panggyig pad digggi kagaga palaggga akona akadaban di alababan akona kenakan malaban akona berangga ber	(142)
10대 (23.8) (21.7) (22.7) (20.1) (17.4) (18.7) (15.5) (13.0)	(17.4)
20-24세 175,850 152,676 328,526 211,255 210,924 422,179 79,045 60,000 13	39,045
25-29세   152,838   92,883   245,721   175,138   152,415   327,553   145,792   114,639   26	60,431
20印 (13.9) (9.9) (11.8) (16.7) (14.8) (15.7) (13.0) (9.6)	(11.2)
30-34세 108,391 94,850 203,241 152,111 92,669 244,780 106,000 123,506 22	29,506
35-39세 128,694 132,793 261,487 107,689 94,542 202,231 121,156 78,170 19	9,326
30대 (10.0) (9.2) (9.6) (11.2) (7.6) (9.4) (13.1) (11.1)	(12.1)
40-44세   132,327   146,458   278,785   127,359   132,120   259,479   95,517   83,737   17	9,254
45-49세 146,863 161,242 308,105 130,040 145,253 275,293 114,927 120,667 23	5,594
40대 (11.8) (12.4) (12.1) (11.1) (11.3) (11.2) (12.1) (11.2)	(11.7)
50-54세 169,611 208,043 377,654 142,403 159,080 301,483 118,597 133,413 25	2,010
55-59세 224,137 265,211 489,348 160,871 203,564 364,435 123,224 135,151 25	8,375
50대 (16.6) (19.1) (17.9) (13.1) (14.7) (14.0) (14.0) (14.7)	(14.4)
60-64세 219,470 250,718 470,188 204,765 256,069 460,834 141,812 167,821 30	9,633
65-69세 149,170 171,122 320,292 188,970 236,683 425,653 158,294 185,621 34	3,915
70-74세   108,115   113,587   221,702   118,580   155,697   274,277   134,127   166,313   30	0,440
75-79세 58,131 68,825 126,956 76,851 97,647 174,498 70,097 107,875 17	7,972
80세이상 35,032 80,719 115,751 49,701 94,557 144,258 54,358 109,402 16	3,760
60대이상 (24.0) (27.6) (25.9) (27.6) (34.2) (31.0) (32.3) (40.4)	(36.4)
함계 2,372,999 2,478,081 4,851,080 2311123 2,459,401 4,770,524 1,732,264 1,823,098 3,5	55,362

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농가인구의 순이농은 없다고 가정함.

부표 4 연 평균 경제 성장에 따른 논벼 생산농가의 이농률

연 령	1990~	95년 실제 (	이농률	경제성장률 2%에 해당하는 이농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0- 4세	0.2882	0.2947	0.2809	0.0812	0.0830	0.0791		
5- 9세	0.3793	0.3855	0.3729	0.1069	0.1086	0.1050		
10-14세	0.5000	0.5001	0.4999	0.1408	0.1409	0.1408		
15-19세	0.5923	0.5873	0.5978	0.1669	0.1654	0.1684		
20-24세	0.5177	0.4341	0.6263	0.1458	0.1223	0.1764		
25-29세	0.5521	0.5923	0.4931	0.1555	0.1668	0.1389		
30-34세	0.4218	0.4419	0.4000	0.1188	0.1245	0.1127		
35-39세	0.3343	0.3439	0.3259	0.0942	0.0969	0.0918		
40-44세	0.3135	0.3196	0.3081	0.0883	0.0900	0.0868		
45-49세	0.2765	0.2796	0.2740	0.0779	0.0788	0.0772		
50-54세	0.2741	0.2608	0.2852	0.0772	0.0735	0.0803		
55-59세	0.2321	0.1915	0.2670	0.0654	0.0539	0.0752		
60-64세	0.2915	0.2305	0.3447	0.0821	0.0649	0.0971		
65-69세	0.2896	0.2204	0.3581	0.0816	0.0621	0.1009		
70-74세	0.2784	0.2270	0.3275	0.0784	0.0640	0.0923		
75-79세	0.3538	0.2920	0.3981	0.0997	0.0822	0.1121		
80세 이상	0.3938	0.4964	0.3553	0.1109	0.1398	0.1001		
합 계	0.4124	0.4093	0.4153	0.1162	0.1153	0.1170		

부표 5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 2000~2005년(종전 추세 지속시)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연 령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0- 4세	31,020	26,700	57,720	38,080	34,232	72,312	26,857	24,094	50,951			
5- 9세	48,526	44,114	92,640	18,094	15,526	33,620	28,931	26,360	55,291			
10-14세	88,546	86,201	174,747	21,052	18,034	39,086	10,246	8,809	19,055			
15-19세	111,204	110,345	221,549	43,079	40,922	84,001	6,470	4,458	10,928			
20-24세	98,570	83,788	182,358	73,510	63,947	137,457	22,193	15,881	38,074			
25-29세	85,728	48,753	134,481	56,153	57,458	113,611	43,688	39,861	83,549			
30-34세	56,303	44,354	100,657	59,691	33,142	92,833	35,002	42,265	77,267			
35-39세	60,837	60,621	121,458	38,805	29,521	68,326	44,955	24,282	69,237			
40-44세	60,559	70,773	131,332	43,567	42,815	86,382	27,153	19,754	46,907			
45-49세	71,345	84,122	155,467	43,463	51,597	95,060	32,308	31,173	63,481			
50-54세	88,982	116,650	205,632	50,933	58,078	109,011	31,521	37,388	68,909			
55-59세	126,965	156,531	283,496	65,927	82,260	148,187	38,523	40,595	79,118			
60-64세	130,955	150,616	281,571	90,472	106,774	197,246	45,003	52,363	97,366			
65-69세	91,266	100,202	191,468	92,505	105,376	197,881	61,637	70,096	131,733			
70-74세	65,517	62,935	128,452	58,477	69,486	127,963	60,926	73,487	134,413			
75-79세	34,284	37,815	72,099	36,271	38,844	75,115	32,255	44,091	76,346			
80세이상	19,999	46,498	66,497	19,286	38,040	57,326	20,622	37,128	57,750			
합 계	1,270,606	1,331,018	2,601,624	849,365	886,052	1,735,417	568,290	592,085	1,160,375			

부표 6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2000~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 2% 가정

	경제성장률 2% 가정 단위: 명												
~ =		1995		20	000년(29	6)	2005년(2%)						
연 령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0- 4세	31,020	26,700	57,720	52,882	47,055	99,937	39,748	35,705	75,453				
5- 9세	48,526	44,114	92,640	26,843	23,115	49,958	39,899	35,956	75,855				
10-14세	88,546	86,201	174,747	39,441	35,518	74,959	13,558	11,381	24,939				
15-19세	111,204	110,345	221,549	73,136	70,878	144,014	13,840	11,071	24,911				
20-24세	98,570	83,788	182,358	98,794	94,485	193,279	42,315	31,388	73,703				
25-29세	85,728	48,753	134,481	84,010	75,047	159,057	56,762	60,844	117,606				
30-34세	56,303	44,354	100,657	77,021	43,681	120,702	54,589	55,136	109,725				
35-39세	60,837	60,621	121,458	50,543	39,609	90,152	57,937	31,906	89,843				
40-44세	60,559	70,773	131,332	55,004	54,862	109,866	35,607	26,849	62,456				
45-49세	71,345	84,122	155,467	54,555	64,457	119,012	40,828	40,143	80,971				
50-54세	88,982	116,650	205,632	63,574	75,285	138,859	39,607	46,366	85,973				
55-59세	126,965	156,531	283,496	78,847	104,330	183,177	48,385	52,894	101,279				
60-64세	130,955	150,616	281,571	108,225	137,162	245,387	53,820	66,155	119,975				
65-69세	91,266	100,202	191,468	106,615	130,547	237,162	74,133	90,777	164,910				
70-74세	65,517	62,935	128,452	68,272	84,374	152,646	70,130	91,281	161,411				
75-79세	34,284	37,815	72,099	43,378	49,224	92,602	37,527	53,197	90,724				
80세이상	19,999	46,498	66,497	25,833	48,314	74,147	25,052	47,081	72,133				
합계	1,270,606	1,331,018	2,601,624	1,106,973	1,177,943	2,284,916	743,737	788,130	1,531,867				

부표 7 미작 농가인구 수 전망(2000~2005년): 1998~2000년 연 평균 경제 성장률 마니어스 가정

단위: 명

~ = A		1995년			2000년		2005년		
연 령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자	계	남 자	여 자	계
0- 4세	31,020	26,700	57,720	59,646	52,883	112,529	45,562	40,946	86,508
5- 9세	48,526	44,114	92,640	30,935	26,646	57,581	44,896	40,304	85,200
10-14세	88,546	86,201	174,747	48,456	44,087	92,543	15,024	12,491	27,515
15-19세	111,204	110,345	221,549	88,384	86,136	174,520	17,337	14,098	31,435
20-24세	98,570	83,788	182,358	110,860	110,210	221,070	52,659	39,245	91,904
25-29세	85,728	48,753	134,481	98,171	83,645	181,816	62,804	71,740	134,544
30-34세	56,303	44,354	100,657	85,320	48,641	133,961	64,638	61,461	126,099
35-39세	60,837	60,621	121,458	55,938	44,210	100,148	64,188	35,514	99,702
40-44세	60,559	70,773	131,332	60,206	60,314	120,520	39,500	30,091	69,591
45-49세	71,345	84,122	155,467	59,513	70,191	129,704	44,715	44,214	88,929
50-54세	88,982	116,650	205,632	69,178	82,994	152,172	43,226	50,364	93,590
55-59세	126,965	156,531	283,496	84,397	114,139	198,536	52,772	58,413	111,185
60-64세	130,955	150,616	281,571	115,991	151,135	267,126	57,593	72,217	129,810
65-69세	91,266	100,202	191,468	112,756	142,185	254,941	79,603	100,277	179,880
70-74세	65,517	62,935	128,452	72,550	91,170	163,720	74,135	99,521	173,656
75-79세	34,284	37,815	72,099	46,571	54,103	100,674	39,818	57,330	97,148
80세이상	19,999	46,498	66,497	29,037	53,059	82,096	27,079	51,735	78,814
합계	1,270,606	1,331,018	2,601,624	1,227,909	1,315,748	2,543,657	825,549	879,961	1,705,510

## 참고문헌

- 김종일,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제 추정방법,"「계량경제학보」, 제 6권, pp. 207-232, 1995.
- 김태홍, "노동시장 전망과 잠재인력 활용방안,"「경제학 연구」, 제44집, 제3호, pp. 117-136, 1996.
- 김호탁 외 7인, 「농업인력: 올바른 인식과 대책」, 농민신문사, 농촌사회경제총 서 4. 1993.
- 농정연구포럼, 「농업인력문제의 실상과 인력정책의 방향」, 1994. 11.
- 윤호섭 외 2인,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254, 1991.
- 이영대 정명채,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229, 1990.
- 이영대 외 2인,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 고 P9303, 1993.
- 이종화,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본의 역할 분석,"「계량 경제학보」, 제6권, pp. 179-205, 1995.
- 이정환, 현공남, "거시적 이농함수 추정과 이농요인 분석," 「농촌경제」, 8(3), pp. 39-46, 1985.
- 이정환, 현공남, 이영만 (1985), "농가인구의 장기예측: 모형개발과 2000년에 적용," 「농촌경제」, 8(4), pp. 51-62, 1985.
- 이정환 외 4인, 「농업부문 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26. 1986.
- 이정환,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M34, 1993.
- -----,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21, 1998.
- 정명채 외 2인,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 연구원 연구보고 R251, 1991.
- 정명채 외 2인,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C94-2, 1994.
- 조재환, 성명환, 사공용, 「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연구보고 R314, 1994.
- 조하현, "거시경제학의 최근 동향: 내생적 성장이론,"「경제학 연구」, 제44집, 제12호, pp. 157-190, 199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립수산계 교육개혁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05, 199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기타연구보고 M39, 1998. 2.
- Barro, R.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w-Hill, Inc. 1995.
- Bosworth, D., P. Dawkins and T. Stromback, *The Economics of the Labour Market*, Addison Weseley Longman, 1996.
- Hart, R.A. and T. Moutos (1995), *Human Capital, Employment and Bargaining*, Ca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95.
- Isserman, A., C. Taylor, S. Gerking, and U. Schubert, "Regional Labor Market Analysis," in P. Nijkamp (ed.),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1, pp543-580, North-Holland, Elevier Science Publisher B.V. 1987.
- Kendrick, J.W. and B.N. Vaccara (eds) (1980),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Unv. of Chicago Press, 1980.
- Kim, Kyeong-Duk, "A Critical Review on the Urbanization and Spatial Development: Inter-Regional Comparis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19, No. 1, 89-115, 1996.
- Mazumdar, D. "Rural-Urban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E.S. Mills (ed.),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2, pp. 1097-1128, North-Holland, Elevier Science Publisher B.V. 1987.
- Stark, O, The Migration of Labor, Baisil Blackwell, 1991.
- Williamson, J. G. "Migration and Urbanization," in H. Chenery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1, pp425-465, North-Holland. Elevier Science Publisher B.V. 1988.

# 圆鹰

### 연구보고 R377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찍은날 1998. 3. 퍼낸날 1998. 3.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범 신 사 ☎720-9786~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